

석사학위논문

김통정 설화 연구

지도교수 현 승 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남 옥

2006년 8월

김통정 설화 연구

지도교수 현 승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남옥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

김통정 설화 연구

이 남 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현 승 환

이 연구는 김통정에 대한 제주민들의 의식을 추출하기 위한 글이다. 주된 논의는 김통정에 대한 역사적 진술과 구비전승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는 몽골의 침입으로 인한 고려 정부의 대응 상황과 구비문학을 전승하는 전승민들의 의식이 들어 있다.

지배층의 관점에서 서술한 역사서는 김통정을 반역자로 인식하지만 구비설화에서는 김통정이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민중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민들이 향유했던 堂神話와 전설을 통해 그 전승과 변이양상을 살펴보았다. 실제 역사상의 인물이 민중들의 의식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먼저 제주도의 堂 중, 김통정과 관련한 당본풀이를 분석한 결과, 주인공 김통정은 외래신과 토착신에게 정치당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또한 당이 소속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샘물을 제공한다. 이는 수신적 기능을 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전승민들이 김통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통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삼별초군이 제주에 입거한 후 저지른 일에서 드러난다. 김통정은 주민들을 노역에 동원시켜 방어 시설을 만들게 하고, 군비조달을 위해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구비문학에서는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점으로 보아 제주민들은 김통정을 마음 편히 수용할 수는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성산읍 장수당이나 애월읍 금덕리당 본풀이에서는 김통정을 샘물을 제공하는 존재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고, 몽고군에게 겁탈당하는 부녀자들을 구하는 긍정적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 결국 당신본풀이에는 신의 좌정담을 김통정과 싸움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허구화하면서 堂神의 위엄성을 높이고 있다.

전설에서는 神異한 출생-활약-죽음이라는 전기성을 통하여 민중영웅으로서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민중들은 몽고의 침략으로 짓밟힌 불안한 사회 속에서 영웅출현을 갈망하였으며, 그 영웅을 신이한 출생과 道術을 부리는 아기장수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죽어가면서 샘물을 제공하는 수신적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의 죽음과 패배에는 반체제적이고 변혁을 바라는 민중의 심리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김통정을 나라를 반역한 역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민중들은 피지배층을 구원해 주는 영웅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아기장수의 죽음으로 민중적 가능성이 좌절로 끝나고 말았지만, 아기장수의 출현은 지배질서에 막대한 위협을 주었다는 점에서 민중의식의 각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3
II. 역사서술에서의 김통정.....	7
1. 歷史上의 김통정	7
2. 삼별초와 濟州民	11
III. 구비전승물에서의 김통정	17
1. 당신화의 전승양상	17
1) 당신화의 구조	17
2) 지역별 전승양상.....	26
2. 전설의 전승양상	34
1) 작품의 구조	34
2) 작품별 변모양상	55
IV. 김통정 설화에 나타난 민중의식	65
1. 당신화에서의 갈등과 해결	65
2. 전설에서의 좌절과 극복	70
V. 결론	73
※ 참고문헌	75
Abstract	78

표 목 차

<표 1> 당신본풀이 지역별 전승자료	19
<표1-1> 기원형 구조형태	19
<표1-2> 기본형 구조형태	20
<표1-3> 성장형 구조형태	22
<표1-4> 완성형 구조형태	24
<표 2> 당신본풀이 구조형태 분석표	24
<표 3> 지역별 당신본풀이 비교	33
<표 4> 전설 분석 대상자료	36
<표 5> 민중영웅과 증거물과의 관계	55
<표 6> 당신화와 전설의 비교	63

I. 서론

1. 문제제기

제주도는 육지와는 달리 제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발전해 온 섬이다. 척박한 토양과 기후, 그리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건 등은 본토에 비해 제주 특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

제주역사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본토와는 다른 지리적 조건으로 생활양식 자체도 달랐다. 원래 독립 부족국가였던 제주도는 고려 태조 이후 본토에 귀속되면서 이때부터 통상 제주도는 독자적 권한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이로서 제주는 고려 중앙정부의 체제하에 들어가게 되고, 제주의 역사는 항상 변방의 소외된 지역으로 점철되었다. 이때 일어난 삼별초 항쟁은 제주 역사상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다.

삼별초는 1270년(원종11) 몽고에의 복속을 반대하여 봉기한 반몽 세력으로서 서남해안의 도서 진도에 거점을 정하고 30여년 항몽전쟁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들은 고려의 정통정부를 자처하고, 承化候 濫을 옹립하여 왕으로 삼고 여러 차례 몽고군을 격파하면서 본토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들에 호응하는 세력이 봉기하는 등 점차 기반이 다져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진도에 항전의 거점을 구축한지 1년 만에 몽고 및 개경군의 공세에 함락당하고, 진도를 탈출한 삼별초 반몽세력의 일부가 제주에 새로운 거점을 정하고 해상세력으로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주에는 몽고가 중점 추진 중인 향후의 정복전쟁에 있어서 고려·남송·일본 3국의 연결점이라는 데서 지리적으로 주목받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때에 봉기한 삼별초 항쟁은 일본정벌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서 몽고는 우선 삼별초의 평정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삼별초가 제주 입거 후 관군과의 싸움이 치열하였고, 제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주는 고려왕의 중앙집권 통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

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삼별초가 여·몽 연합군에 의해 토벌된 이후, 13세기 전 반부터 14세기 후반까지 근 백년간은 元의 목마장으로서 외세의 지배를 받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메마른 땅에 三災가 겹친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관리들의 착취와 외세의 침탈로 인한 역사적 배경은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제주도 설화를 이해하는데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즉, 제주라는 한 집단의 문화 양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아울러 구비문학에 스며있는 민중의 의식을 함께 살펴보아야 제주문화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제주의 설화는 본토 지역의 설화와는 달리 그 나름의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구비물 또한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만약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어떤 의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삶이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고려사에서 김통정에 대한 기록은 삼별초군이 진도에 퇴거했다가 여몽연합군에 패하여 제주도로 들어올 때 비로소 나타난다. 제주도를 마지막 항쟁지로 삼아 그 군사적인 세력을 펼쳤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을 둘러싸고 지배층의 관점에서 쓴 史料와 민중들의 의식을 반영한 구비설화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구비설화와 官撰의 사서는 각각 민중과 지배자의 ‘자신들의 관점’에서 말해진 역사해석이다. 관찬사서는 역사적 해석이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쓰여 졌기 때문에 민중을 바탕으로 쓰여진 설화와는 그 인식자체가 다르다.

이 글에서 살펴볼 김통정 이야기도 당시 침략세력이었던 중국(몽고)과 국내의 역사서에는 나라를 반역한 역장(逆將)으로 인식되어 列傳의 한 부분을 할애하였고, 탐라 민중의 구비물에는 김통정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인물로 각각 그려졌다. 즉 역사서에는 중앙·지배층의 입장에서 삼별초 진압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구비물에서는 역사사실을 허구화시키면서 당신본풀이와 전설의 형태로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표면에 등장하는 지배층의 문화보다 역사의 이면에 숨어 있는 민중의 의식을 살펴본다는 것은 설화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

한 일이다. 이와 같이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구비서사물을 살피는 작업은 설화의 전승·전파, 서사구조·모티프상의 변화 등 문학적 관심 분야를 폭넓게 하며, 역사서가 담당하지 못하는 민중의 역사인식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¹⁾

이 연구는 제주사람들이 삼별초 항쟁을 겪으면서 느꼈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하여 민중들의 의식을 구비물의 구조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향유자들의 인식양태 및 현실에 대응하는 삶의 양식을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구비설화 가운데 김통정 이야기가 나타나는 당본풀이와 전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먼저 살펴본 다음, 민중의 의식을 살피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이 글은 제주의 인물전설에 나타난 김통정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설화를 향유했던 민중들의 삶을 더듬고 제주민의 생활의 바탕이 되었던 의식을 밝히는데 있다. 즉 인물전설 분석을 통하여 민중들의 생활의 바탕이 되었던 의식들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그것들을 종합하여 그 설화를 향유한 민중들의 삶의 실체와 존재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인물전설은 실제 있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서 그 인물의 생애와 행적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전기적 성격을 띤다. 또한 실제로 있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역사적 성격을 아울러 떨 수밖에 없다. 즉, 김통정 이야기는 허구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사실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역사상의 인물이 민중들의 이야기관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향유하고 있는 민중들이 인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리적·역사적으로 본토와는 다른 독립된 공동체로서 많은 설화를 간직

¹⁾ 임재해(1982), “전설과 역사”, 「한국문학 연구입문」, 지식산업사, p.125.

하고 있다. 오랜 생활과정에서 형성된 이러한 설화 속에는 濟州的 특유의 생활양식과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거기에는 남다른 관습과 신앙으로 인하여 제주민의 의식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제주민들은 지리적 조건에 따른 불모성과 빈번한 외세의 侵害를 받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이 불우했던 생활여건 속에서 설화를 통하여 민중의 의식을 찾아내는 일은 그 한 시대를 살았던 민중들의 삶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김통정은 고려시대 몽고와의 항쟁을 위해 삼별초를 마지막까지 이끈 역사적 인물이었다. 이러한 김통정은 제주 구비물에서 신화적인 능력을 가진 초능력적인 위대한 인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당본풀이에서는 중국 장수에게 징치되는 등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설화의 역사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내용이다. 즉, 당신본풀이나 인물전설이나 간에 그것은 많은 향유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뤄진 유통문학과 적층문학²⁾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초월하게 되면서 더욱 활발히 전승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는 당시의 신앙, 사회경제 생활의 현실적 사실이 신화화한 것이고³⁾ 제주민의 생활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다. 그것은 곧 마을당의 신의 이야기 이면서 마을사람들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다. 지역민들은 당신의 본을 푸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한을 풀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 인물전설도 마찬가지로 이다.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자기를 결속시킨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역사와 사회에 대한 민중들의 적응양식이 존재한다. 당신본풀이와 인물전설이 갖는 민중의식이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⁴⁾

지금까지 김통정 이야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삼별초 항쟁이 고려시대 역사상 가장 큰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 체제하에

2) 「한국문학사전」(1973), 「동아문화연구소」, 서울대학교, pp.93~94.

3) 현용준(1964), 「당신화의 구성과배경」, 「제대학보」, 제6호, 제주대학교, p.14.

4) 현길언·김영화(1980), 「제주설화를 통한 제주도 정신고구」, 「논문집」, 제12집, 제주대학교, p.155.

서 삼별초 항쟁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사학 분야⁵⁾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문학적으로 형상화시켜 역사적 사실과 민중적 의식을 고찰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직접적으로 김통정 이야기를 제주당신본풀이와 인물전설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으로는 권태효⁶⁾와 오대혁⁷⁾의 논문에서 김통정 이야기의 역사적 사건을 제주민과의 역사 의식과 대비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각각 거론하였고, 김영화⁸⁾는 김통정의 활동과 소설과의 관계를 문학적 상상력으로 고찰하였으며, 현길연의 「제주도 장수설화」⁹⁾에서는 제주사회 및 제주민의 민중의식을 아기장수 설화를 통하여 총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김통정 이야기를 일부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제Ⅱ장에서는 삼별초의 마지막 항쟁을 위해 제주에 입도한 김통정에 대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김통정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주변의 역사인물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김통정의 항몽의식과 제주에 입도한 후 제주민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김통정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과 제주민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진정한 민중들의 의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단원으로 김통정 이야기가 당신화와 전설에서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당신화에서는 당신화 구조속에서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각 지역별로 변이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설에서는 작품 구조를 통해 김통정의 영웅적 일대기를 살펴본 다음 작품마다 어떻게 이야기가 변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당본풀이와 전설에서의 차이점도 같이 살펴보려고 한다.

5) 이 논문 전개를 위하여 역사학적으로 인용하고 참고한 논문은 아래와 같다.
 고창석(1984), “여.월과 탐라와의관계”, 「논문집」, 제17집, 제주대학교
 윤용혁(1994), “별초진도정권의성립과그전개”, 「한국사연구」, 아세아문화사
 김윤근(2004), “삼별초정부의대몽항전과국내외정세변화”,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이경희(1996), “삼별초고”, 「연우연구론집」, 이화여자대학교녹우회
 윤용혁(1994), “고려삼별초의제주항전”, 「제주도연구」, 제11집, 제주도연구회
 김상기(1938), “삼별초와 그의 난에 취하여”, 「진단학보」, 진단학회
 6) 권태효(1996),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 제8집, 구비문학학회
 7) 오대혁(1997), “김통정관련 서사물에 투영된 역사인식”, 「동원논집」, 제10집, 동국대학교
 8) 김영화(2000), “김통정의활동과 문학적 상상력”, 「탐라문화」, 제2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9) 현길연(1981), 「제주도 장수설화」, 흥성사

제IV장에서는 II,III장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당신화와 전설에는 민중의 의식의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중 당신본풀이에 관한 자료는 이미 수집 정리된 진성기¹⁰⁾의 「무가본풀이 사전」을 중심으로 김통정 이야기가 담긴 본풀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는 그 당에 좌정한 신들의 일생을 중심으로 하여 서사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의 단위로서 출생·성장, 그리고 죽음(무신의 좌정)의 과정을 통하여 한 신(인물)의 전반적인 삶을 살피려 한다.

인물전설에 대한 자료는 이미 수집 정리된 「전설집」¹¹⁾과 2002년도에 조사된 「제주항과두리항몽유적지 학술조사자료」¹²⁾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10) 진성기(1991),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1) 현용준(1976), 「제주도 전설」, 서문당

제주도(1985), 「제주도전설지」

김영돈·현용준·현길언(1985), 「제주설화집성」 I,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한국구비문학대계 9-3(제주편)(198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성리지(1983), 북제주군에월읍고성리향토지편찬위원회

12) 고창석(외)(2002), 「제주항과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기본정비계획」, 제주북제주군,

II. 역사서술에서의 김통정

1. 歷史上의 김통정

우리가 어느 인물의 전기를 대할 때, 어느 정도 그 인물의 긍정적 가치를 전제로 한다. 일단 전기속의 인물은 역사에서 일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의 궤적의 의미 있으므로 전기화 된다. 그런데 그 인물의 전기는 자신의 눈을 통해서이거나 적어도 그를 이해하는 눈으로 기술되기 마련이다. 우리가 어느 인물에 가치를 느껴 전기를 기술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¹³⁾

일단 우리가 어떤 인물을 상징하고 전기를 읽었을 때, 우리는 서술자의 시각에서 행적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즉, 역사적 전기는 김통정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민중들이 전하는 설화에서는 김통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한 인물을 설정하여 전기를 살펴볼 때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나타난다. 관찬사서에서 김방경을 두고 행적을 이해할 때는 김통정은 정치적으로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만으로 한 인물에 대한 年代記를 살펴보는 것은 지배층의 시간만 주목하는 것이므로 문학적 상상력에 의한 이해·분석을 통해 김통정의 인물상을 재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려사에서 김통정에 대한 기록은 삼별초군이 진도에 퇴거했다가 여몽연합군에 패하여 제주도로 들어올 때 비로소 나타난다. 제주도를 마지막 항쟁지로 삼아 성을 구축하고 병사를 정비했으며 남해안을 비롯한 내륙지방까지 침투해 여몽군사들과 관군을 습격하는 등 그 군사적인 세력을 펼쳤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관찬사서에서의 삼별초나 김통정에 대한 인식은 정부에 반역한 역장(逆將)으로 이해되어 왔고, 그러한 인식은 전설에서 뿐만 아니라 당신본풀이로도 엮어졌다.

¹³⁾ 유용대(1981), “설화와 역사인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7.

김통정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관찬사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다른 인물들에 대하여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지배층의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해석과 민중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구비설화와는 그 인식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방경에 대한 기사는 《고려사》 열전 충신조에서 서술하면서 예사롭지 않은 출생에 관한 이야기와 청렴결백한 관리상을 묘사하면서 김방경의 행적을 영웅화 시키고 있다. 몽고군의 진압에 앞장섰던 김방경이 고려의 자주성을 주장하며 독립정부를 세운 삼별초와 대결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삼별초를 섬멸시킨 후, 그의 명성은 고려뿐 아니라 원(몽고)까지 널리 알려지고, 원의 세조의 후대를 받았다. 역사에서 그는 난국에 처한 고려를 구하여 평정시켜 큰 공을 세운 장군으로서 기술되고 있다.

김방경은 安東 金氏로 좋은 가문의 출신이나 음서를 통해 武班職을 받고 입사하였다. 몽고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서북면병마판관(西北面兵馬判官)이 되매 몽고 병사가 제성(諸城)을 내공(來攻)하거늘 위도(葦島)에 입보(入保)하매 섬에 10여 리(里)의 평야가 있어 가히 경작할 수 있으나 해조(海潮)를 근심하여 개간하지 못하므로 김방경이 독을 쑤고 파종(播種)하게 하였다. 백성이 처음에는 괴롭게 여겼으나 가을에 미처서는 크게 익어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섬에 또 우물이 없어 항상 육지에서 길어오매 왕왕히 포로(捕虜)가 되었으므로 김방경이 빗물을 모아 못을 만들었으므로 그 근심이 드디어 없어졌다. <김방경이 서울로> 들어와서 견룡 행수(牽龍行首)가 되매 때에 금위(禁衛)가 다투어 권문(權門)에 붙어 숙위(宿衛)가 심히 해이한지라, 김방경이 그것을 분개하여 비록 병이나도 쉬지를 아니하였다. 숙직(宿直)하는 곳이 낮고 좁아서 위사(衛士)가 다 밖에서 자는지라, 동료인 박모(朴某)란 자가 한 창녀를 데려 오려 하였으나 김방경이 굳이 말리니 박(朴)이 부끄러워서 사과하였다. 어사 중승(御史中丞)에 옳아 법을 지켜 아부치 않으니 풍절(風節)이 늑연(凜然)하였다...적들이 탐라에 들어가 내성과 외성을 쌓고 그 힘준함을 믿고서 더욱 날뛰게 되었으며, 때때로 나와 노략질을 하면서 안남의 수령 공유를 붙잡아갔다. 이리하여 바닷가 지방은 소란하게 되었는데 적들이 경기에까지 침범하기에 이르니 도로가 제대로 토하지 못하게 되었다. 왕은 이것을 심히 우려하여 14년에 김방경을 행영 중군 병마 원수로 삼아서 보냈다. 김방경이 다시 군사들을 훈련하고 수군과 함께 1만여 명을 거느리고 혼도·홍다구와 더불어 반남현에 주둔하고 장차 탐라로 떠나려 하였는데 각 도에서 온 전선들이 모두 바람에 쓸리어 파선되므로 전라도에서 온 160척

만을 가지고 떠났다. 함대가 추자에 들러 바람이 순조롭게 불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중에 돌연히 거센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게 되었다. 새벽이 되고 보니 벌써 탐라에 가까이 와 있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세차서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김방경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면서 이르기를, “나라의 안녕함과 위태로움은 이번의 정벌에 달려 있고, 오늘 일의 성패는 나에게 있지 않은가!” 하고 하였다. 이윽고 풍량이 멎었으므로 중군은 함덕포로부터 진공해 들어갔다.¹⁴⁾

이에 비해 배중손은 反逆 인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원종 대에 여러 관직을 거쳐 장군에 이르렀다’¹⁵⁾며 배중손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개경 환도에 불복한 배중손이 노영희 등과 함께 항몽 세력을 규합해 承化侯 溫을 왕으로 삼고 항몽을 수행해 나가는 삼별초 전체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전반부에 내세웠던 배중손을 후반부에 들어서는 그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김방경이 몽고 원수 혼도 등과 함께 3군을 통솔해 적을 격파했다’¹⁶⁾하며 결국은 김방경 중심의 서술을 하고 있다.

「삼국유사」 卷4 에서는 삼별초가 봉기하였을 그 당시의 江都의 분위기는 개경 환도 할 때의 혼란이 강화천도 당시보다 더했다고 하고 있다.¹⁷⁾ 그러나 배중손, 노영희 등이 새로운 왕을 擁立하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의미는 몽고에 굴복하고 백성을 배반한 王을 국왕으로 인정치 아니함과 동시에 국민 대다수의 여망대로 끝까지 몽고와 항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필요했던 것¹⁸⁾이라고 하고 있다.

《고려사》 후반부에야 등장하는 김통정은 적장으로서 패잔병을 이끌고 탐라로 들어가 갖은 폐약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인물로서 끝내 죽음에 이르고야 말았다는 내용이 서사화 되었다.

배중손과 노영희는 삼별초를 거느리고 시랑에 모여서 承化侯 溫(고려 제8대 임금 현종의 후손)을 협박하여 왕으로 삼고 관부를 설치했는데, 대장군 유존혁과 상서좌승 이신

14) 《高麗史》列傳 17(金方慶)조

15) 《高麗史》列傳 43(배중손)조, ‘裴仲孫元宗朝積官至將軍’

16) 《高麗史》列傳 43(배중손)조, ‘方慶與蒙古元帥斡都等率三軍擊破’

17) 「삼국유사」 卷4, ‘庚戌出都之亂 顛沛之甚 過於壬辰’.

18) 나종우(1986), 「고려무인 정권의 몰락과 삼별초의 천도항몽」, 원광사학, 제4집, pp.90~91.

손을 좌우 우승선으로 삼았다. 적들은 진도로 들어가서 근거지로 삼고 인근 고을들을 노략질하였으므로 왕이 김방경에게 명령하여 특별케 하였는데, 이듬해에 김방경은 몽고 원수 혼도 등과 함께 3군을 통솔하고 적을 격파 했던 바 적은 모두 처자를 버리고 멀리 도망쳤으며 적장 김통정은 패잔병을 거느리고 탐라로 들어갔다. 이신손은 적을 따라서 탐라로 가려다가 중도에서 돌아왔다. 유준혁은 남해현에 근거를 두고 연해 지방을 노략질하다가 적들이 탐라로 도망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또한 80여 척의 배를 영솔하고 따라 갔다. 적들이 탐라로 들어 간 후에는 안팎으로 성을 쌓고 때때로 나와서 노략질하면서 주·군(州郡)을 횡행하고 고을 수령을 살해하니 연해 지방이 소연해졌다..중략....14년에 왕이 김방경에게 특별을 명령하니 김방경이 혼도 등과 함께 탐라로 진공해서 적을 섬멸하였는데 이 때 김통정은 70여 명의 수하를 데리고 산 속으로 도망해 들어가서 목메어 자살했다. 이리하여 탐라는 평정되었다.¹⁹⁾

김통정에 대한 기록은 독자적인 역사기술은 없으며, 위의 《고려사》 <김방경>조나, <배중손>조에서 삼별초의 진압과정에서 김통정의 이름이 나오고, 《고려사절요》에서는, “윤월에 탐라에 주둔하였던 장군 송보연이 적 괴수 김통정의 시체를 얻어 보고하였다.”²⁰⁾고 하면서 김통정의 자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중국의 사서인 《元史》나 《新元史》에서는 “진도의 도적을 토벌하자 김통정이 남은 무리를 거느리고 탐라로 달아났다”²¹⁾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김통정이 직접적으로 역사 서술에 언급되는 것은, 1271년 김방경과 홍다구가 이끄는 여몽연합군에 쫓겨 탐라로 들어갔고, 2년 넘어 항전하다 끝내는 패배한 인물로 그려진다.

《고려사절요》는 조선왕국의 집권자들이 고려왕국을 멸망시키고, 개국의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한 前朝 사서 간행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역사서로서, 《고려사》와는 독자적으로 편찬되어 《고려사》만큼은 상밀하지는 못하나, 거기에 없는 자료가 많이 들어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김통정에 대한 역사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서들이 지배세력의 관점에서 서술하였기 때문에 김통정 관련 역사물들은 거의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사기록들을 종합하면 김통정은 배중손과 더불어 고려 정부와 몽고

19) 《高麗史》列傳, 43(배중손)조, ‘賊, 旣入耽羅, 築內外城, 時出剽竊, 橫行州郡, 殺守宰, 濱海蕭然, 十四年, 又命方慶討之, 方慶, 與旻都等, 進攻之, 賊大潰, 通精, 率七十餘人, 遁入山中, 縊死, 耽羅遂平’

20) 《고려사절요》 제19권, <원종 순효대왕>

21) 《元史》 「세조본기(世祖本紀)」, 「열전(列傳)」 홍복원(洪福源)조, 高麗조, 耽羅조.

《新元史》 「열전(列傳)」 홍복원(洪福源)조, 高麗조,

에 저항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 배중손 등 상급자들은 민족 자주의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왕족의 한 사람인 승화후 온을 왕으로 추대하였으며, 김통정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항몽투쟁을 벌어나갔다.

삼별초군이 강화도에서 저항하다가 패하게 되자 진도까지 밀려 내려오고, 배중손 마저 죽자 김통정은 잔여 병정을 이끌고 제주도로 옮겨와 투쟁을 계속하였다. 제주도까지 쫓겨온 김통정이 성을 쌓고 남해안 일대를 소란하게 하였다는 것은 위의 기록에 나와 있다. 그러나 김통정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저항했느냐는 것은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관찬사서에 기록된 김통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항쟁의 본거지인 제주에서의 민중들의 의식을 구비물을 통하여 같이 살펴볼 때만이 진정한 역사의식을 함께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제주민들이 삼별초의 항쟁에서 어떤 입장에 섰었는지, 그리고 삼별초가 제주를 거점으로 항전을 벌이는 동안 제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살피는 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김통정은 제주도에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신앙의 대상인 堂神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민중 영웅의 모습으로 전설의 주인공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통정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이야기일 수 있고, 당곳에서 신격을 섬기는 당신화로서의 이야기일 수 있고, 민중의 의식을 담은 전설적 인물로 변용되어 비범한 행위를 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²²⁾

2. 삼별초와 濟州民

진도 정부 하에 삼별초군이 제주도에 처음 입거한 것은 원종 11년(1270) 11월의 일이었다. 당시 제주도에 개경정부에서 파견된 안찰사 權단, 영암부사 金須를 비롯하여 장군 高汝霖 등이 방어에 임하고 있었는데, 李文京이 지휘하는 삼별초군에 의하여 진멸됨으로써 제주도는 진도의 배후 거점이 되었다.²³⁾

²²⁾ 권태효(1999), 전계서, p.151.

²³⁾ 《高麗史節要》 18, 元宗 11年 11月.

김통정은 1271년 5월에 진도에서 삼별초가 내세운 새 정부의 군왕인 승화후
濼과 그의 아들 桓이 홍다구의 손에 죽고, 그때까지 항몽을 이끌어 온 배중손마저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탐라로 들어왔
다. 그는 고성리 항바두리에 내외(內外) 두성(城)을 쌓아 진을 구축하고 마지막 항
거를 피하였다. 원종(元宗)은 수차례에 걸쳐 사람을 보내어 피어내려 했으나, 가는
사람마다 살해당하거나 또는 그를 탐라에 상륙시키지 않고 추자도에 억류 시켰다
가 되돌려 보내었다.

갑신(27일) 함문 부사 금훈과 산원 이정이 5월 15일에 배를 타고 출발하였었는데, 때
마침 맞바람에 밀려서 보마도에 정박하였다가 역적 김희취·오인봉·전우 등의 배4척이 와
서 사신의 배를 빼앗고 탕던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 자기들의 배에 옮겨 싣고는 항복하
라는 초유문을 압수하여 가지고 제주에 가서 김통정에게 보고하였다. 김희취 등은 금훈
일행을 데리고 그 길로 추자도에 이르러 그들을 구류하여 감시하고 있었다. 통정에게서
회보가 오자 김희취 등이 금훈 일행에 대해 거만한 태도로 꾸짖기를, "너희들이 일찍이
사람을 진도에 보내어 우리를 유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해이케 하고는 대군을 이끌고 공
격하여 패진케 하였다. 생각건대, 부모처자라는 것은 인정상 가장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
야 할 사람들인데 이미 모두 다 납치해 갔으니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원한이 골수에
사무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들을 전멸시키려고 여기에 와서 속임수를
쓰려하고 있다. 너희들은 진실로 마땅히 모두 죽어야 할 것이로되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번의 이 일에 대한 우리의 뜻을 누가 가서 전달하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들을 놓아
보내니 그리 알라'고 하면서 썩고 파괴된 작은 배 한척과 늙은 뱃꾼 한 사람과 아울러
항복하라는 초유문을 주어서 돌려보내었다.²⁴⁾

몽고도 일본정복을 염두에 두고 고려에 잔존세력을 없애기 위하여 김통정 친족
을 보내 회유해 보았지만, 끝내 거부하였다.

임신 13년(1272) 6월 이 때에 적이 이미 탐라로 들어가서 내외성을 쌓고, 수비가 험
하고 굳건함을 믿으며 날로 더욱 창궐하여 항상 나와서 노략질하니 연해 지방이 소란하
였다. 8월 원나라에서 시위친군 천호 왕잠을 보내어 홍다구와 더불어 탐라를 정벌할 계
책을 의논하였다. 다구가 표문을 올려서, "김통정의 무리가 많이 왕경에 있으니 그들

²⁴⁾ 《高麗史》元宗 15年 5月 27日.

불러오게 할 것이며, 불러도 듣지 않으면 공격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황제가 좃았다. 다구가 이에 통정의 조카인 낭장 김찬 등 5명을 보내어 거서 효유하게 하였는데 통정 등이 듣지 않고, 김찬을 남겨두고 그 밖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²⁵⁾

이와 같이 교묘한 수단으로 김통정을 설복시켜려 했으나 결국 실패한 여몽연합군은 최후 수단으로 탐라 공격을 위한 동원령이 내려졌다. 삼별초 세력은 몽고로 업은 개경 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세적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 방어설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제주도에서의 방어시설은 진도에서의 경우보다 훨씬 강화된 느낌을 준다. 그것은 진도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은 까닭이었다. 기록상 삼별초에 의한 방어설비는 지휘부가 들어선 항파두의 내·외성, 해변 涯月浦의 성곽, 그리고 제주 해안을 둘러싼 장장 3백여 리의 長城 등을 들 수 있다.²⁶⁾ 《고려사》에서는 「內外城을 쌓고 그 險固함을 믿어 날로 더욱 창궐하여 항상 나와 虜掠하니 濱海가 肅然하였다」²⁷⁾라고 하면서 그 당시를 기록하고 있다. 그들의 공격 목표는 첫째, 몽고가 일본 정벌을 위하여 건조하고 있는 병선을 파괴할 것, 둘째, 서울로 질어 나르는 쌀과 양수송 선박을 탈취할 것, 셋째, 몽고인과 몽고를 돕는 관원 및 조선공을 납치하는 것 등이었다.²⁸⁾ 그러나 김통정은 여몽연합군에 맹렬한 火攻을 맞아 항전하였으나, 끝내 항파두성이 함락되고 말았으며, 죽음의 목전에 다다라서도 남은 병력만을 이끌고 한라산에다 진을 치고 싸우다 결국 자결해야만 했던 비극적 인물이다.

삼별초의 제주 입거는 대규모 군사집단이 한꺼번에 외부로부터 몰려 들어왔다는 점에서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외부로부터 이 같은 무장집단의 대량 유입은 도민의 생활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삼별초가 탐라에 들어온 후 지역민들은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식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들은 제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동제원·송담천 전투에서 삼별초의 이문경 부대가

25) 《高麗史節要》, 「元宗順孝大王」

26) 윤용혁(1994), 전개서, p.46.

27) 《高麗史》卷27, 元宗 13年 6月條

28) 김봉옥(2000), 증보 『제주통사』, 세림, p.53.

정부군과 싸움을 벌일 때 제주읍성을 피하여 조천포에 진을 쳤던 점과, 중심지를 벗어난 서쪽 외곽지에 향파두성을 만든 것을 보면 삼별초는 제주 사람들을 상당히 의식했던 모양이다. 현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승전의 비결임을 알았던 것이다.²⁹⁾ 이 싸움에서는 관군이 패하였는데 패배의 원인이 제주 토착민이 삼별초를 호응하여 도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金須, 高汝森 등이) 주야로 聖堡를 쌓고 兵器를 설치하여 (삼별초군이) 올만한 길을 막아 방어하고자 하였으나, 토착민들이 요모조모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賊(삼별초)이 다른 길로 이른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시중(김수)이 평소 大義로써 적(삼별초)의 선봉을 거의 죽였다. 그러나 토착민들이 적(삼별초)를 뒷받침 하였으므로 중과부적이 되었고 마침내 高將軍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³⁰⁾

또한 삼별초의 입거에 대하여 제주민이 관군보다 삼별초군을 더 호응한 것이 지역의 반 개경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제주가 고려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게 된 것은 12세기 초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이 같은 통제는 지방관의 파견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제주민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갈등으로 인해 제주민들은 삼별초를 호응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A) 경신 원종 원년(1260) 2월 제주에 방호사를 두었다.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제주 는 바다 밖의 큰 鎮으로 송나라의 상인과 섬의 왜인이 때 없이 왕래하니, 특별히 방호 별감을 보내어 비상사태를 예방하여야 하나 별도로 방호별감을 둘 수 는 없다.” 하여, 드디어 부사 나득황으로 겸하도록 하였다. 앞서의 수령이 부정하게 재물을 탐하여 파면 되었었는데, 득황이 와서는 더욱 백성을 착취해서 권귀에게 아부하니, 고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에는 작은 도둑을 만났더니 이제 더 큰 도둑을 만났다.”하였다.³¹⁾

(B) 충선왕 3년(1311) 7월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렸다. “제주 백성들은 응당 특별히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인데 그 곳 수령이나 군관들이 체멋대로 약탈을 자행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식목녹사를 파견하여 그런 행위를 금지시켜야 하겠다.³²⁾”

29) 이영권(2005), 『새로쓰는 제주사』, pp.81~82.

30) 崔濠, 『金文正公墓地』, 『拙稿千百』 1.

31) 東史綱目

32) 《高麗史》, 형법지(刑法志) 직제(職制)

(C) 제주도의 옛 풍속에 15세 이상의 남자는 매년 콩 1斛을 바치고 衙門의 아전 수백명은 매년 말 한 필씩을 바쳤다. 이를 부사와 관관이 거두어 나눠 가지니, 이 때문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가난한 자라도 모두 부자가 되었다.³³⁾

위의 기록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수탈로 제주 백성들은 지독하게 착취하였으며, 1168년 ‘양수의 난’, 1186년 ‘번석·번수의 난’ 1267년 ‘문행노의 난’등은 대부분 지방관의 가렴주구에서 비롯된 민란으로 짐작된다.³⁴⁾

이와 같이 지방관리들의 수탈과 가렴주구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제주민들은 삼별초를 구원의 영웅자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문경의 전투 때와는 달리 삼별초 본진이 제주에 입도했을 때 그 규모에 불안감이 감돌았을 것이다. 더불어 삼별초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져만 갔을 것이었고, 항과두성이나 환해장성 축조 때에는 제주 사람들도 강제로 동원되었을 것이다. 삼별초는 이미 40년 대몽항쟁의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오며 가장 강력한 반몽세력의 핵심집단으로서 성격이 역사적으로 굳어진 집단인 반면, 제주민은 아직 몽고로부터의 직접적 피해 경험이나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³⁵⁾ 삼별초의 대몽항전과 제주민은 역사인식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즉, 제주민들이 반감을 갖은 것은 지배집단이지, 몽고에 대한 민족의식은 아직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몽고와 대립하는 삼별초를 이유 없이 돕는 것은 분명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삼별초의 직접적 권력 앞에서 일단은 삼별초의 의도대로 움직였을 것이고 협조를 하더라도 긴장 속의 마지못해 소극적 협조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³⁶⁾

하지만 실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제주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고려군이 철수하면서 “원래 탐라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안심하게 살게 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그에 대한 정황만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관군이 삼별초와 제주민을 분리하여 대하고 있는 모습은 삼별초와 제주민의

33) 《高麗史節要》 17, 高宗 46年 10月.

34) 이영권(2005), 전계서, p.81.

35) 윤용혁(1994), 전계서, p.74.

36) 이영권(2005), 전계서, p.82.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양자가 긴밀하게 결합하지는 않았음을 말해 준다.³⁷⁾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민들은 삼별초의 입거 초기에는 호의적이었고 적극적인 가담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동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삼별초가 군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선 등을 포탈했던 것으로 보아 군사유지를 위해 제주민을 수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별초 본진의 입도와 제주민들의 항몽에 대한 역사인식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인식이 긍정적이지마는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과 결부되어 당신화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설에서는 민중을 구원해줄 영웅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역사에 나타난 실제 인물이 민중들이 향유했던 구비전승물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민중들의 이야기관에서는 그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 시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제주 당신본풀이와 인물전설을 통하여 각각 민중들의 의식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³⁷⁾ 이영권(2005), 전계서, pp.81~82.

Ⅲ. 구비전승물에서의 김통정

1. 당신화의 전승양상

1) 당신화의 구조

설화는 사회와 역사의 場에서 전승되면서 필연적으로 변모된다. 따라서 설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승 및 변이양상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설화의 구조와 의미를 해당설화 유형 및 계기적 구조 속에서 다룰 때만이 깊이 있는 해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김통정 이야기도 당신화와 전설의 전승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과 결부되어 나타나기도 하여 작품 내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변이와 작품 외적으로 나타내는 역사적 재현의 양상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승의 구조 및 총체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화에 나타난 신의 입도과정과 좌정경위를 분석해 보면 김통정과 제주 사람들의 역사적인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제주 사람들은 불모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왜구의 침탈, 관리들의 수탈, 중앙관서에 특산물 진상 등 역사적 상황에 따른 갖가지 일들이 제주 사람들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억압되고 폐쇄된 사회환경 속에서 제주민들은 자신들을 구제할 유일한 신앙을 무속신앙에서 찾았다. 그들은 당신을 신앙함으로써 堂神과 하나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현실적 황폐함을 보상받으려 했던 것이다.³⁸⁾

제주 사람들의 당신들의 내력담인 본풀이는 신의 근원을 풀어내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제주민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당본풀이, 조상신 본풀이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당신본풀이인 경우는 제주

³⁸⁾ 현길언(1983),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탐라문화』,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p.15.

도 문화와 사회상황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제주 당신본풀이에는 사람들이 살아왔던 사회성과 역사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제주민의 생활 모습 그 자체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 투쟁에서 자아(堂神)가 패배하는 전설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데서 신성보다는 인간성이 더 짙게 깔려 있다. 이러한 점들이 당신본풀이를 인물전설들과 함께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된다.³⁹⁾

제주 당신본풀이의 서사구조는, 고난-극복이라는 신화적 질서에 놓이지 않고, 고난, 방황, 몰락이라는 비극적 구조를 가져 전설과 상통한다. 고난에서 극복하여 자기를 구원받고 새로운 세계에 편입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추방되어 방황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제사를 받아 사는 슬픈 신으로 몰락하는 것이다.⁴⁰⁾

당신본풀이 중에는 구체적인 역사사실이 삽입되어 당신의 신성함과 영험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본풀이들은 형태적으로 볼 때 기원형에서부터 예술적인 구성을 이룬 설화형에까지 무수히 산재해 있는데⁴¹⁾,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본풀이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당신화에 나타난 인물의 갈등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제주도 지역에서 김통정이야기가 당신화로 전승되는 지역은 애월, 성산, 안덕 지역 등 세 곳이다. 그 중 애월지역은 삼별초 항쟁의 배경이 되었던 김통정이야기의 발원지이고, 성산, 안덕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변이양상들이 나타난다.

이 연구를 위해 제시한 지역별 전승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진성기의 『무가본풀이사전』에서 발췌하였다. 당신본풀이의 구조모형은 장주근의 분류한 기준⁴²⁾을 적용하여 참고하였다.

39) 현길언(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p.24.

40) 상계서, p.65.

41) 현용준(1963), “무속신화 본풀이의 형성”, 「국어국문학」, 제26권, 국어국문학회, p.124.

42) 장주근(1986),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제주도연구」, 제3집, 제주도연구회, p.251.

<표1>. 당신본풀이 지역별 전승자료

구분	전승지	무가명	구연자
A	애월면 고내리	고내본향당본풀이①	양태옥(애월면 신엄리, 남무, 당시42세)
B	애월면 고내리	고내본향당본풀이② (큰당)	양창보(애월면 애월리, 남무, 당시30세)
C	애월면 고내리	고내본향당본풀이⑤ (신도본향)	고경삼(애월면 고내리, 신여, 당시64세)
D	애월면 고내리	고내본향당본풀이⑥ (고내본향)	진유아(애월면 납읍리, 여무, 당시65세)
E	애월면 금덕리	금덕리당	고일부(애월면 금덕리 여무, 당시 70세)
F	성산읍 삼달리	삼달본향당본풀이①	한기신(성산면 온평리, 남무, 당시49세)
G	성산면 성산리	성산본향본풀이① (장수당)	신명근(표선면 표선리, 남무, 당시 68세)
H	성산면 성산리	성산본향본풀이②	조옥순(성산면 수산리, 여무, 당시49세)
I	안덕면 덕수리	광정당본풀이	고창학(안덕면 창천리, 남무, 당시69세)

가) 起源形 : 단순히 神의 본만이 풀이되고, 여기에 그 職能, 祭日, 祝願詞 등이 덧붙여 5,6행정도 밖에 안 되는 단편으로서⁴³⁾, 아무런 서사성이 없고 ‘남신입도’ 과정만을 간단하게 풀이하고 있는 "H"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는 김통정의 장수로서의 행적만이 서술되고 있다.

<표1-1> 기원형 구조 형태

구성요소	유형	인식	모티브 분석
남신입도	H	장수의 행적	1)항바두리 김통정이 만리장성 둘러쌓듯 삼천병마 신도본향 살려오라

나) 基本形 : 기본형의 구조는 ①男神의 入道-③좌정경위담으로 “C,E,F,I”에 나타나 있다.

이 기본형에서의 남녀 신들은 입도하면 어디에건 좌정해서 인간의 제물을 받아

⁴³⁾ 상계서, p.251.

먹고 살아야 한다. 좌정경위에서 신화다운 기본적인 서사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⁴⁴⁾이 있다. 첫째는 射矢卜地로서, 이것은 사냥과 육식을 하는 남신의 경우가 많다. 둘째는 신이 좌정했으나 마을에서는 알지 못하니 흥함과 재난을 주어서 알리고 제물을 받으며 좌정을 굳히는 방법이다. 셋째 좌정방법으로는 신의 좌정처로 정한 곳에 안내시키는 방법들도 있다.

좌정방법 중 射矢卜地하는 경우는 ‘C형’에서 한라산에서 활을 쏘아 고내리로 좌정처로 정한 경우와 ‘I형’에서 삼형제가 활을 쏘아 자신의 영역을 가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 ‘F형’에서는 김통정이 좌정을 하려고 하나, 좌정사실을 알지 못하니 김통정이 꿈에 나타나 자신들을 제사지내 주면 벼슬을 주겠다고 알려주어 좌정한다. 이렇게 좌정한 신들의 일생은 중국 삼장수에게 패배한 영웅의 일생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1-2> 기본형 구조 형태

구성요소	유형	인식	모티브 분석
남신의입도	C	제압	1)중국에서 김통정을 잡으려 황서,국서,병서 삼장수가 입도한다
	I		1)옛날 서촌양반 3형제가 있었는데,첫째는 큰성은 성내(제주시내) 과양당이고, 셋째는 정외의 선양당이고, 맏갓아시는 대정 광정당이다.
	E	신격위상	1)옛날 이 마을 설립할 적에 유수암에 김통정 장수가 설립한 당이 있다.
	F		1)황서국왕이 병이 나자 아들 삼형제가 중(僧)의 말을 따라 黄牛의 피를 먹어 살렸다. 2)황서국왕은 역적으로 몰려 제주 별도 수전포로 들어왔다.
좌정경위	C	좌정내력	한라산에서 활을 쏘아 고내리를 좌정처로 삼는다.
	E	활약	1)김장수 시절에 고내봉에는 굴레벗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남의 곡식을 모두 먹어버리고 해도 끝내 잡지를 못하였다. 2)하루는 김장수 꿈에 산신대왕 산신백관이 나타나서 이리저리 하여서 잡으면 고내봉에 굴레벗은 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니 그 말을 잡아서 타면 알수가 있을 것이라 했다. 3)김장수가 산신대왕 산신백관이 말해준대로 그 말을 잡아다가 타는데 잠깐 사이에 제주 삼읍을 모두 돌아오곤 하였다. 4)한 해에는 왜놈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에 재물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겁탈하니 김장수가 왜놈들을 성제오름 앞으로 유인하여 절박한후 제주목사에게 바쳤다. 6)제주목사는 상감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나라에서는 큰 상금이 내리고 벼슬까지 주었다. 7)그렇게 해서 김장수가 건공장군이 되었는데 그후에 산신대왕 산신백관을 위하는 당을 설립하니 마을 사람들도 무심할 수가 없어 정성으로 위했다. 8)후에 이형상목사 시절에 이 신당집을 불태워버렸다.

44) 상계서. p.252.

구성요소	유형	인식	모티브 분석
	F	좌정내력	1) 셋째아들은 역적으로 몰려 제주로 피난하여 별도(화북) 수전포, 종달리, 성읍, 삼달리에 좌정하였다. 2) 김통정이 꿈에 나타나 자신들을 제사지내면 벼슬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제사를 받게 되었고, 김통정 집안은 상단골이 되었다.
	I	제압	1) 황버두리 김통정이가 들어와 집집마다 재와 빗자루를 받아 비를 말꼬리에 매달고 성 위에서 달리게 하니 세상이 어두웠다. 2) 하루는 세형제가 김통정일 잡으러 가니, 김통정이 무쇠방석을 바다에 던져 그 방식으로 날아가 갈아 앉았다. 3) 바다의 四神龍神은 새우뿔이 되어 그 방석을 잡아 당기자, 김통정은 매가 되어 날아갔고, 과양당 큰형이 뒤를 쫓아 김통정이 목이 움직이는 순간에 목 비늘 틈으로 베어 죽였다. 4) 세형제가 한경면 조수리에서 활을 쏘아 땅을 가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자, 큰형은 대정으로 활을 쏜다고 한 것이 정의 대정사이엘 쏘아 정의 대정 한계를 가르고, 둘째형은 정의에 화살을 쏘노라고 한 것이 정의 소재지 신당에 쏘아 목관(제주시)과 정의 한계를 가르고, 셋째아우는 목관으로 활을 쏘노라고 한 것이 목관과 대정 사이를 쏘아 목관 대정 한계를 갈랐다. 5) 다시 좌정처를 정하려고 큰형은 말을 타서 달리니 목관 팔십여필 차지하여 과양당에 좌정하고, 둘째형은 그냥 빈채로 달리니 정의 삼십팔리를 차지하여 선양당에 가 좌정하고, 셋째아우는 기여서 가니 작으만치 대정 이십칠도를 차지하여 광정당에 가 좌정하였다.

김통정을 잡으러 온 중국의 삼장수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김통정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김통정은 집집마다 거둔 재로 연막을 쳐서 도술을 부렸기 때문에 아기업개의 도움 없이는 김통정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삼장수보다 김통정의 능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남신의 입도과정에서 김통정은 전설에서는 패배한 장수이면서도 이면에는 민중의 영웅으로 그리고 있지만, 당본풀이에서는 끝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인물로 나타난다.

좌정경위에서는 제주 각 마을에 좌정해 있는 당신 대부분이 육지부에서 쫓겨온 신들이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대가로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공생관계에 있다. 그들이 이 섬까지 쫓겨 오게 된 것은 지배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⁴⁵⁾ 결국 제주민들은 버림받고 추방당한 인물들을 자신들이 살아온 불우한 처지와 동조하면서 당신으로 받들게 되었고, 김통정은 한때 토착민들에게 먹을 물을 제공하면서까지 민중의 영웅이 될 뻔한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가 인간들에게

45) 현길인(1985),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p.19.

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개자인 무당은 신의 내력담을 인간들의 내력담이 되도록 만들면서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착민들은 김통정을 결코 좋은 인식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토착당신으로 하여금 제주도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김통정을 물리쳤다. 결국 토착당신이 외래신을 퇴치한다는 것은 제주민들의 겪었던 역사적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成長形 : 남신이 입도하고 여신이 道內서 탄생하여 좌정하게 된 경위를 나타내고 있다. 위 자료 A, D에서 보이며, “①남신입도-③좌정경위-②여신입도”의 구조로 되어 있다.

<표1-3> 성장형 구조 형태

구성요소	유형	인식	모티브 분석
남신의입도	A	제압	1)천자국에서 김통정에게 제주도의 우마와 생산물을 둘러보게 했으나 김통정이 욕심을 내어 제주를 차지하려 하니, 김통정을 잡기 위해 황사님, 을사님, 국사님 등 삼장수를 보내었다.
	D		1)대국 천자국에서 김통정에게 제주의 축산과 각종 생산물의 상태를 알아오라 했으나 그 생산물이 탐나 제주를 차지하려 했다. 김통정을 잡기 위해 천자국의 삼장수가 들어왔다
좌정경위	A	징치	1)김통정이 성을 견고하게 쌓고 재로 연막을 쳐서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했다. 2)삼장수가 어떤 여인의 말을 좇아 무쇠 성문을 녹이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3)김통정이 바다에 무쇠방석을 던지고 새우로 변신해 있었는데, 삼장수가 협력하여 힘들게 징치한다. 4) 삼장수는 용왕국 막내따님아기에게 반해 그곳에서 당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D	징치	1)김통정은 만리토성을 쌓고 백성들에게 걷은 재로 제주섬을 감추었다. 2) 천자국의 삼장수가 김통정을 잡으러 성에 들어가려 하나 첩문이 견고해서 들어가지 못하자 한 계집아이가 그 방도를 알려준다. 3) 김통정이 달아나면서 유태한 아내를 죽인다. 4) 바다에 무쇠방석을 띄워 피했으나 삼장수가 새와 새우로 변해 김통정을 죽인다. 5) 삼장수가 귀양온 용왕국 막내따님아기에게 반해 그 곳에 좌정하게 된다. 6) 후에 완력 좋은 새치영감도 따로 상을 받는 당신으로 함께 섬겨진다
여신입도	A	좌정내력	1)월궁녀 선녀는 용왕국 셋째 딸아기로 고내봉 북쪽에 좌정하였다
	D	좌정내력	1)고내봉 북쪽의 만년 팽나무 그늘에 좌정하였다.

이 구조는 삼성신화에도 보이고 있는 유형으로서 ①남신의 入道-②여신의 입도-③결혼↔④좌정경위담의 연결구조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남신과 결혼하고 나서 같이 좌정하는 경우이다.

김통정은 출생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날개달린 아기의 모습이나 비늘로 온몸이 덮여 있다거나 도술을 부리는 그의 행위는 민중영웅감이다. 그러나 사회는 이 인물을 그냥 두지 않는다. 힘과 능력으로 사회와 싸워 이길 수 있으나, 당신본풀이에서는 우마와 생산물을 탐내 제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방을 당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당시 특산물과 말은 고려와 몽고에서 탐낼 정도로 우수한 것이어서 제주민들은 진상해야 하는 억압에 시달렸으며, 또한 관리들의 수탈과 몽고인의 횡포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겪었다. 또 삼별초 주둔으로 인해 노역이 동원되었으며, 식량부족과 군비조달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들이 중국 삼장수나 천자국에서 파견된 장군에 의해 정치를 당한 것이다. 김통정이야기는 그의 불운한 일생이 본풀이에 삽입되면서 인물전설과 공유하거나 변이된 양상들을 보이면서 신이 좌정하게 된 내력을 노래하고 있다.



라) 完成形 : 위의 갈등이 끝내 노출되면서 완성형의 형태를 이룬다. 이 완성형에서는 위자료 B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남신입도-㉡좌정경위-㉢여신입도-㉣결혼-㉤식성갈등과 별거”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여신의 돈육식으로 인한 별거로 2차에 걸쳐 나타난다. “별궁자 딸아가기가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해서 황사와 살림을 갈랐고, 일년에 한번 부부가 상봉한다”고 되어 있어 언제나 육식은 부정한 상위의 것, 미식은 깨끗한 상위의 것이라는 대립관념이 보인다. 이것은 제물, 제법의 풀이라는 종교제의와 아울러서 농경문화의 우위성을 말하는 문화관의 반영이라 여겨진다⁴⁶⁾. 이 완성형에서는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순차적인 구조성을 보인다.

46) 현용준(1985),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p. 208.

<표1-4> 완성형 구조 형태

구성요소	유형	인식	모티브 분석
남신의湧出	B	정치	1)김통정의 난리 때 초나라의 황서, 국서, 병서 삼장수가 들어와 김통정을 정치하였다
좌정경위	B	좌정내력	1)국서는 천자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황서와 병서는 한라산에서 활을 쏘아 화살이 떨어진 고내오름에 와서 좌정하였다.
여신입도	B	여신입도	1)용왕국 별궁자 딸아기는 부모에게 불효하여 귀양을 오게 되었고, 고내봉 북쪽의 고내오름 허리에 좌정하였다.
결혼	B	결혼	1)황서와 부부지간이 되었다.
식성갈등과 별거	B	갈등	1)별궁자 딸아기가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해져서 황서와 살림을 가르고, 일년에 한번 부부가 상봉한다.

마) 설촌 경위형 : ‘G형’의 장수당 본풀이에서는 종교의례를 벗어나 성산 마을의 샘물을 제공한다는 설화형 구조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제주민들이 살아왔던 사회성을 반영한 모티브로서 그 마을 주민들이 새로이 마을을 개설하여 정착해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본풀이들은 단순히 종교의례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신앙민들의 생활관습의 근원을 푸는 종교체계이며, 문학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당신본풀이는 결코 우연한 모티브들의 집성이 아니고, 제주도 촌락 신앙의 종교체계이며 신학이 되는 것이며, 또 제주도 지리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여 총괄적으로 도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당신본풀이 구조형태 분석표

일련번호	무가명	구조형태	
		구조형	구성요소
A	고내본향당본풀이①	성장형	㉠남신입도-㉡좌정경위-㉢여신입도
B	고내본향당본풀이②(큰당)	완성형	㉠남신입도-㉡좌정경위-㉢여신입도-㉣결혼-㉤식성갈등과 별거

47) 장주근(1994), “제주도 서사무가(본풀이)전승의 현장연구”, 「제주도연구」, 제11집. 제주도연구회, pp.25-26.

C	고내본향당본풀이⑤ (신도본향)	기본형	㉠남신입도-㉡좌정경위
D	고내본향당본풀이⑥ (고내본향)	성장형	㉠남신입도-㉡좌정경위-㉢여신입도
E	금덕리당	기본형	㉠남신입도-㉡좌정경위
F	삼달본향당본풀이①	기본형	㉠남신입도-㉡좌정경위
G	성산본향본풀이① (장수당)	설화형	설촌 경위담
H	성산본향본풀이②	기원형	㉠남신입도
I	광정당본풀이	기본형	㉠남신입도-㉡좌정경위

애월지역 고내본향 및 금덕리당은 기본형과, 성장형, 완성형의 구조를 골고루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신의 입도’는 당신본풀이가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가장 잘 허구화한 부분으로서 세 남신은 천자국(A), 초나라 화양평(B), 황서국(F)으로 중국의 삼장수 또는 여몽연합군으로 변개시키면서 외래신인 김통정을 진압하고 신으로 좌정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삼달본향 및 성산본향에서는 기본형과 설화형의 구조를 이루며, 삼달본향당을 제외하고는 서사단락이 짧아 단순히 신의 본만이 풀이되고 있다. 이는 당신에게 내용을 기원하는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삼달본향당은 세 당신의 좌정과 김통정 집안이 상단골이 된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성산본향(장수당)에서는 당신의 좌정경위와는 무관한 마을의 설촌내력담을 나타내고 있다.

광정당본풀이에서는 애월지역 본향당에서 외래신이 입도한 경우와는 반대로 제주도에서 생겨났으며, 토착당신에 의해 김통정이 정치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즉, 서촌 양반 3형제인 토착당신들은 외지에서 들어온 김통정이 제주도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큰 형이 뒤를 쫓아 날아가 정치하였다. 이는 외래신의 입도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김통정을 죽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신의 ‘좌정경위’는 당신본풀이에서 많은 양과 복잡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는 부분으로서 외래신격간의 갈등과 토착신과의 갈등 대결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지

역별 변이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神에 대한 기구의 축원이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복잡하게 된 것은 그것이 바로 그 축원을 직접 듣는 타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데 있는데 여기에 바로 당신본풀이의 민중성이 있는 것이다.⁴⁸⁾

나) 지역별 변이양상

지금까지 당신화 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지역에서 당신본풀이가 전승되는 지역은 애월, 성산, 안덕지역에서 각각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본풀이가 역사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허구화된 것인지 당신화에 나타난 인간과의 갈등은 무엇인지 각 지역별로 변이된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본풀이들을 살펴보기 위해 앞에서 거론한 대상 자료를 아래와 같이 기호를 표시하여 다시 제시한다. 단, 행정구역 명칭은 당시 자료를 기록할 당시의 명칭을 사용한다.



애월면 : 가1.고내본향① 가2.고내본향② 다.고내본향⑤ 가4.고내본향⑥ 가5.금덕리당
성산면 : 나1.삼달본향① 나2.성산본향①(장수당) 나3.성산본향③
안덕면 : 다1.광정당②

애월지역 가1~가4는 김통정에 대한 당신화와 전설이 가장 풍부하게 전승되는 지역이고, 삼별초가 여몽연합군과 최후까지 결투하여 항쟁을 벌였던 곳임에도 ‘남신의 입도 및 좌정경위담’에서 보면 김통정을 당신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중국 삼장수에게 징치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김통정이 제주도에 들어오게 된 것도 대몽항쟁이나 제주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주의 우마와 생산물에 욕심을 낸 까닭이라 하고 있어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⁹⁾

제주민들은 고려중엽부터 진상이라는 명목아래 특산물을 헌상하면서 고려 관리들의 횡포와 착취에 시달렸고,⁵⁰⁾ 삼별초 진압 후 충렬왕 때에는 제주에 말을 방

48) 현길인·김영화(1980), 전계서, p.160.

49) 권태효(1999), 전계서, p.162.

50) 「耽羅星主遺事」(1979), 고려서적주식회사, p.110에서 고려중엽부터 탐라에 대한 지방행정력이 강화

목하여 궁중의 승용에 충당하고, 원나라에 소속된 뒤로는 말의 사육이 잘 되지 않아 공출량이 매우 줄어들었다. 국가에서 원나라에 간다든가 또는 정벌을 원조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지방관에게 말을 바치도록 하거나 또는 계급에 따라서 모든 관료에게 할당시켜서 경비를 거두기도 하며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좋은 말을 빼앗아 들이기까지 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매우 고통으로 여겼다.⁵¹⁾ 이로 인해 제주민의 겪는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고려와 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특산물과 우마를 탐내 김통정이 제주에 입도하였다고 하였으니 관군이냐 중국 삼장수가 이를 가만 놔둘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김통정이 삼장수에게 징치되는 양상은 당신화에서 뿐 아니라 전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화소인데 광정당의 자료를 제외한다면 모두 김통정이 중국의 삼장수나 김방경의 부하장수에게 징치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삼별초군은 여·몽 연합군에 밀려 고려 원종 11년(1270) 11월 제주에 입도하는 과정에서 관군과 싸움이 벌어졌고, 제주민들과 갈등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 전투에서 방어군과 삼별초간의 제주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관군이 패하게 된 원인은 토착민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주민들이 삼별초를 도왔다는 것은 단순히 대몽 항쟁을 전개하고 있는 삼별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 고초를 겪은 제주민들이 삼별초를 구원군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주민에게 있어서는 삼별초 주둔으로 축성에 따른 노역이 동원되었을 것이고, 군량미와 군비조달로 인한 식량부족, 그리고 ‘항몽’에 대한 역사적 인식 등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나중에는 제주민과 삼별초는 전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되면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조공토록 강요하였으니 진상이라는 명목밑에 특산물, 토산물 등을 바치게 하였으며, 특별세를 징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貢賦제도가 빈번해짐에 따라 고려 관리들의 횡포와 착취가 날로 심해졌다. 이 무렵 탐라가 헌상하는 특산물로는 귤과(橘果), 우황(牛黃), 우각(牛角), 우피(牛皮), 나자(螺子), 비자(櫃子), 해조(海藻), 구갑(龜甲) 등이었다.

51) 「원고려기사」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충렬왕 14년(1288)에는 제주에 말을 방목하여 번식시켜서 궁중의 승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여러 왕과 재신, 문무 관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탐라도에서 산출되는 것이 가장 많았었다. 그러다가 역적(삼별초)의 반란이 있는 뒤에 원나라에서 섬에 거주하는 백성을 육지로 옮기고 탐라를 따로 원나라에 소속시킨 뒤로는 말의 사육이 잘 되지 아니하여 해마다 공출량이 매우 줄어들었다. 국가에서 원나라에 간다든가 또는 정벌을 원조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지방관에게 말을 바치도록 하거나 또는 계급에 따라서 모든 관료에게 할당시켜서 경비를 거두기도 하며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좋은 말을 빼앗아 들이기까지 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매우 고통으로 여겼다

우선 삼별초는 제주도를 그들의 최후 거점으로 삼고 방어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도민 각 호당 빗자루 한 자루와 재 한말씩을 거두었고 또 축성과 진지구축에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였으며,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식량이 부족한 결과 불일을 본 후 허기를 채우려 해도 그 인분마저 남에게 도둑맞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고통스런 이야기가 실지 전설에서 아직도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제 노역에 대한 반감이 지역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부정적 인식을 낳게 되었으며, 그런 부정적 인식들이 김통정을 중국 삼장수에게 징치되게 만든 것이다.

한편, 몽고 및 고려군이 제주에 주둔하여 통치하게 되면서 그 역사적 사실과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처럼 표면적으로 왜곡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이런 의식의 반영으로 중국 삼장수를 당신으로 모시게 했고, 당신화에서도 표면적으로는 김통정에 대해 부정적인 존재로 형상화하도록 되었다⁵²⁾는 것이다.

그러나 가5 금덕리당에서는 신비한 말의 출현으로 다시 영웅 장수로서 되살아남을 볼 수 있다. 그는 꿈에 산신백관이 현몽하여 신비한 말을 잡아타는데, 여기에 나타난 말은 아기장수와 같이 출현하는 용마와 같은 존재로 김통정의 영웅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말은 설화 속에서 국가 창건의 시조나 비범한 인물의 탄생을 미리 알고 사람들에게 알려 주거나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왕이나 장수의 죽음·나라의 멸망을 예시해 주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등의 신이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나타난다.⁵³⁾ 그러나 아기장수의 용마는 아기장수가 죽음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내어 울음소리와 함께 죽어 지명전설을 유래하지만, 김통정이 타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제주 삼읍을 돌아올 정도로 그 비범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말의 비범성은 설화에서 화살의 빠르기와 비교되기도 한다.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무술을 연마하던 곳이 함흥의 반룡산 기슭의 馳馬臺 부근이다. 그가 용마를 얻어 타고 무술을 연마하던 어느 날, 말에게 말했다. “내가 이곳 馳馬臺에서 連浦亭을 향하여 활을 쏠 터이니, 너는 이 화살이 떨어지기 전에 그곳에 당도해

52) 권태효(1999), 전계서, p.164.
53) 최운식(1991),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p.340.

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너의 목을 베겠다. 이성계는 활을 당김과 동시에 힘껏 달렸다.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30리 먼 길을 달려 목표지점에 당도하였다. 그런데 그 옆 소나무에 화살 한 개가 박혀 있었다. 그 화살을 살펴보니 그것은 자기가 쏜 화살이 틀림없었다. 그는 말이 화살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생각하고 약속대로 말의 목을 베었다. 그 때, 화살 한 개가 시뻘소리를 내며 날아와 소나무에 박혔다. 말이 화살보다 먼저 도착하였는데, 전날 쏘고 거두지 않은 화살을 조금 전에 쏜 화살로 잘못 알고 말을 처형하였던 것이다. 성계는 자기가 경솔하였음을 후회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말을 몰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으며, 왕이 된 후에는 그곳을 馳馬臺舊墓라고 명명하고, 비각을 세우게 하였다고 한다.⁵⁴⁾

이처럼 말이 비범하고 신이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나타나는 현상은 장수나, 장군의 설화에서 많이 등장하며, 뛰어난 장수로서의 영웅적 기질을 상징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설화의 주요 모티브이다.⁵⁵⁾

한편, 왜놈들이 쳐들어와 마을의 재물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겁탈하는 것을 짐장수가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여몽연합군이 삼별초 진압 후 몽고가 약 1세기동안 제주를 지배하면서 몽고의 억압과 횡포의 수모에 시달리게 되고, 목축사역의 구실 하에 초적죄인을 데려와 풀어 놓는 등 몽고군의 각종 만행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별초가 평정된 원종14년부터 몽고의 억압과 횡포의 수모에 시달리게 되고, 목축사역의 구실 하에 초적죄인 170여명을 데려와 풀어 놓았기 때문에 이들 죄인들의 횡포, 절도로 불안과 공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갔다. 고려와 원나라 양국에 현상하는 과중한 세공과 관의 관원, 고려의 경래관 성주 왕자 등 삼중으로 지배층의 토산물 징발에 의한 수탈은 물론 때로는 탐관오리의 극심한 가렴주구와 탐관과 결탁된 권력층 토호들의 농지감점 등으로 인권은 극도로 유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헤어날 길이 없었다. 장정들은 전쟁터 또는 중노역장으로 끌려갔으며 부녀자들은 몽고인의 노비로 징발 당했다. 그러나 호소할 곳조차 없으니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이었다.⁵⁶⁾

그러나 갖은 약탈과 만행을 저지른 중국 삼장수도 당신과 같이 위함을 받게 되

54) 이흥기(1944), 「조선전설집」, 조선출판사, pp.408~414.

55) 김유신 설화에서도 말의 빠르기와 화살의 빠르기를 경쟁한다.

56) 변승규(1992), 「제주도略史」, 제주문화, p.38.

었다고 하는 것은 중국 삼장수가 원신이 되어 인간들에게 대한 복수를 두려워함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형상목사가 신당집을 불태워버렸다’는 내용이 이 본풀이에 일부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이목사가 무당들의 행패와 그 사회적 병폐가 심해서 풍속 개량과 백성의 교화란 이유를 들어서 신당을 철폐했던 사건이 전설화된 경우이다. 무속신앙이 제주 사람들의 생활을 완전히 지배했었던 당시 사회에서는 무속은 일종의 종교적인 신앙과 같은 것이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황폐한 삶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불모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왜구의 침탈, 행정력의 부재로 인해 가림 주구하는 관리들의 횡포, 역사적 상황에 따른 갖가지 일들이 더더욱 제주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⁵⁷⁾ 이러한 사회 상황에서 제주사람들에게 희망이며, 자신들을 구제해 줄 종교가 바로 무속신앙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신앙함으로써 당신과 하나 되는 정신적 상황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현실적 고통을 받은 제주 사람들에게는 당신숭배의 무속은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지배력을 통해 신당 철폐에 성공하였으나, 민중의 가슴 속에 굳혀진 당신 숭배 사상은 없애질 못하였다. 그 당시의 가장 큰 사건이었던 신당철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 본풀이에 삽입되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통정을 당신으로 섬기면서도 구체적으로 김통정이라 하지 않고 막연히 짐장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김통정을 신앙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이런 이유를 권태효⁵⁸⁾는 삼별초 난이 평정된 후 이곳에 몽고군 및 고려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그들을 의식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산면 지역의 당신화는 애월지역과 달리 김통정과 대결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는 김통정이 샘물을 제공하는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당신으로 섬겨지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배경에는 제주도가 샘(泉)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인 물을 제공하는 김통정을 신으로 받들만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산지역에서는 당본풀이에서 나타나지만 애월지역 전설에서도 물로 고통 받는 백성들에게 ‘헛

57) 현길언(1983), 전계서, p.106.

58) 권태효(1999), 전계서, p.167.

부리샘물'을 제공하고 있어 물 제공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갖는다.

성산면 삼달리본향당은 역적으로 몰린 황서국의 셋째 아들이 소를 잡아 부친의 병을 고쳐 낫게 하였으나, 그는 역적을 살린 죄로 제주로 추방당한다. 제주로 추방되었다는 것은 제주도가 당시에는 사회가 수용할 수 없어 거부하는 인물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질서가 생성될 수 있는 땅임을 시사하는 것이다.⁵⁹⁾

이러한 사실은 제주에 입도한 사람들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것이면서, 제주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시 도덕률에 대한 민중들의 반항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⁶⁰⁾ 또한 사회와 역사에 대한 제주백성의 의식체제와 폐쇄된 사회현실에서 살아온 자신들을 이러한 신들의 불행한 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현재의 자신을 보는 것이다.

나3자료에서는 김통정과 그의 대결이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단지 김장군이 여몽 연합군과 싸워 승리해서 결국은 좌절하게 된 내력을 말하거나, 김통정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장수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산의 당신화에서는 김통정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수로 제주민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긍정적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안덕면 덕수리 광정당본풀이에서는 세 토착당신과 김통정과 그의 갈등이 나타난다. 즉, 토착당신들이 김통정을 징치했다는 점에서 김통정에 대한 제주민의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옛날 서촌양반 사성제가 있었는데, 큰성님은 성내 과양당이고, 셋성님은 정이 선양당이고, 말쑤아시는 대정 광정당입니다. 황바도리 김통정이 들어와 토성금성을 둘러싸고 매 호마다 불체 닦되, 비 혼들리씩 받아, 비는 물꼴리에 돌아매고 불체는 성우에 곶아 물에 채를 주어 들리니 시상이 확확하여 갔습니다. 호로운 과양당, 선양당, 광정당 사성제가 김통정일 심으레 가니, 김통정인 무쇠방석을 마당데레 댕겨, 그 방석데레 놀아가 끌어왔이니, 바당에 스신용신은 이젠, 새비뭉이 되고 그 방석을 심어 땡기니, 김통정은 또시, 매가 되어 놀아가니, 과당당 큰 성님이 조름에 좇아 놀아가고 김통정이 모가질 움직거릴 때에 비눌이 야씩 들러지연, 그 비눌 들러진 트명으로 목을 비여 죽였습니다.⁶¹⁾

59) 현길언(1981), 전계서, p.52.

60) 현용준(1981), "본풀이의 형성과 내용",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학회, pp.181-183.

61) 제보자 : 고창학, 안덕면 창천리 남부69세

이러한 김통정과와 같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고려에 대한 반역 장수로서의 인식이 민중들에게 미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별초군이 제주에 들어와 성을 구축하고 군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본 도민들과의 같등 대립이 있었다는 것이다.⁶²⁾

광정당신은 한라산신의 아우라 한다. 제주의 중심에 자리잡은 한라산은 제주도를 대신하는 것이며, 이를 지키는 산신인 한라산신과 그의 아우인 광정당신은 제주도의 수호자인 셈이다. 그런데 그런 수호자가 김통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광정당신은 당신 중에 신령이 세어서 누구도 그 앞을 지나갈 때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했다고 할 만큼, 그 당신은 제주의 절대적 존재임을 의미하였다.⁶³⁾ 이렇게 강한 광정당신에게 외부 세력인 김통정이 정치 당하였으니 이는 제주의 수호신에게 거부당하는 김통정에 대한 인식, 즉 토착민과의 같등이 격렬하게 상징적으로 표현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내용은 애월 고내리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파견된 삼장수 대신 토착당신 삼형제가 설정되었다는 점은 곧 외래신격 간의 대결이었던 것이 外來神과 土着神의 대결로 변모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

결국 외래신과 토착신의 대결에서 외래신은 지배계층의 관점에서, 토착신을 민중의 의식을 대변하는 신으로 대결을 벌이며, 결국은 외래신은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광정당본풀이에서 보여준다. 즉 김통정을 외래신격으로 설정하여 퇴치한다는 것은 다른 외래신이 제주도에 피해를 입혔다는 의식이 강하기에 토착당신들을 앞세워 징치했을 것이다.⁶⁵⁾ 즉, 여몽연합군이나, 삼별초군이나 제주민에게는 결국 외세의 세력일 뿐 민중 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당신화에서의 김통정은 지역민들에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김통정이 제주 입거 후 축성과 진지구축에 노역이 동원되고, 식량부족으로 인해 토착민과의 같등이 드러나게 되면서 외래신과 토착신에게 징치 당하게 되었고, 결국 부정적인

62) 현길언(1981), 전계서, p.144.

63) 현길언(1983), 전계서, p.118.

64) 권태효(1999), 전계서, p.172.

65) 권태효(1999), 전계서, p.172.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수당이나 금덕리당 본풀이에서는 김통정을 샘물을 제공하는 존재로 위상을 높이고, 몽고군에게 겁탈당하는 부녀자를 구하는 등 긍정적 존재로 형상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별로 나타난 당신화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3>. 지역별 당신본풀이 비교

구분	애월(고내본향,금덕리당)	성산(삼달본향,장수당)	안덕(광정당)
堂神	중국에서 온 삼장수	김통정	광정당신 (과양당신.선왕당신)
對決樣相	중국의 삼장수 對 김통정 외래신격간의 대결	없음	세 토착당신 對 김통정 외래신과 토착신의 대결
승리자	중국의 삼장수	없음	토착당신
갈등양상	축성과 진지구축에 노역동원, 식량부족, 입도하는 과정에서 토착민과 갈등	당시 도덕률에 대한 민중들의 반항	고려에 대한 반역장수 토성구축,군비강화 과정에서 토착민들과의 갈등
김통정에 대한 인식	부정적:강제노역에 대한 반감 긍정적:해방군으로 인식	부정적:샘물을 제공	부정적 : 토착민과의 갈등
堂神의 중요 행적	김통정과외래신의 대결에서 승리 활을 쏘아 삼장수의 영토 분할,용왕국 따남아기와외 혼인,왜놈퇴치,	김통정 집안이 상단골이 됨 김통정의 장수적 면모 집집마다 샘을 파서 먹을 물을 마련해 줌 (뚜렷한 대결양상 없이 행적중심 이야기)	김통정 징치 토착당신 삼형제가 활을 쏘고 말을 달려서 영토 분치
민중들의 의식	전쟁체험에 의한 외래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외래신을 당신으로 섬기는 까닭은 원신이 되어 인간들에게 복수를 당할까하는 두려움과 몽고군이 주둔함에 따른 두려움 때문	사회가 거부하는 인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주민의 의식체계와 폐쇄된 사회현실을 나타냄	외래신은 지배층의 관점에서, 토착신은 민중의 의식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결국 외래신의 퇴치는 제주에 피해를 입혔다는 의식때문

2. 전설의 전승양상

1) 작품의 구조

삼별초군이 강화도와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에 들어올 때까지의 김통정의 활동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항과두리성에 진지를 구축하여 김통정이 삼별초의 우두머리로 출현하면서부터이다.

제주에 입거한 삼별초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 해 하반기에는 특별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제주에 입거한 초기, 삼별초군이 본토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군사행위를 전개하지 않고 정찰활동과 오로지 축성 등 방어시설에 주력하였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역사서에 서술된 김방경은 《고려사》 열전 충신조에 서술되면서 예사롭지 않은 출생으로부터 몽고군의 진압에 앞장서고 삼별초를 섬멸하여 난국에 처한 고려를 구한 큰 공을 세운 장군으로 서술되고 있는 반면에, 김통정은 패잔병을 이끌고 탐라로 들어가 갖은 패악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인물로서 끝내 죽음에 이르고야 말았다는 내용이 서사화 되었다. 그러나 실지 역사서에서 말하는 김통정과 구비물에 나타난 제주민의 의식과는 같은 것일까.

전설에서의 김통정은 앞장에서 살았던 당신화와는 그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전설은 당신화보다 그 내용이 더 풍부하고 비극적인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비물에 나타난 김통정 이야기는 그의 비범한 출생에서부터 축성시설, 여몽연합군과의 전투, 패함,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대기적 과정을 그린다는 점에서 전기적 성격을 띤다. 또한 실제적 인물이기에 역사적 사실과 일정한 대응관계를 지니고 있다.

인물전설의 주인공들이 민중들 편에서 민중들의 현실적 삶의 고뇌를 해결하고, 그들의 초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민중들의 숭앙을 받는 것처럼, 김통정도 제주민의 의식 속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민중의 영웅으로 생각하였고,

그가 결국 패망했다 하여도 그 시기에 난세를 극복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군으로 그들은 이야기관에서 민중의 영웅으로 부각되었던 것 같다.

이 장에서 살펴볼 전설 속의 김통정 이야기도 몽고의 침략으로 짓밟힌 불안한 사회 속에서 영웅출현을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 영웅을 신이한 출생과 道術, 神術을 부리는 아기장수로 탄생시켜 자신들의 현실적 고난을 구제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인물의 一代記的 전개는 “英雄의 一生”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英雄의 一生”은 멀리 고대신화에서 나타나서 서사무가로 계승되고, 소설의 유형구조로도 널리 이용된 전승유형이다⁶⁶⁾. 조동일은 이 영웅이야기를 순차적 구조를 분석해서 구조적 유형을 정립하여 ‘귀족적 영웅의 일생’과 ‘민중적 영웅의 일생’으로 나눈 바 있다⁶⁷⁾. 이와 같은 유형들을 참조하면 영웅소설의 구조는 ‘① 탄생 ② 축출 ③ 복귀 ④ 화합’으로 나눌 수 있고, 아기장수 전설은 ‘① 탄생 ② 갈등(再生의 挫折) ③ 죽음’⁶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김통정 이야기를 아기장수형 구조에 근거를 두고 아래와 같이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구조를 분석해보면 민중들이 역사적인 인물을 이야기관에 끌어들여 이야기하면서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 A. 神異한 出生
- B. 卓越한 能力을 통한 活躍
- C. 抗拒를 하지 않을 수 없는 危機에 부딪침

66) 조동일(1971),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 『동아문화』,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pp.178~179.
67) 조동일(1985),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p.118.에서 영웅이야기 전개의 순차적 구조를 분석해서 구조적 유형을 정립
귀족적영웅이야기:가)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남 나)비정상적으로 형태되거나 출생 다)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 라)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고비 이룸 마)구출,양육자를 만나서 죽을고비에서 벗어남 바)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힘 사)위기를 투쟁으로 극복 승리자가 됨
민중적 영웅이야기:가)미천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남 2)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 3)항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에 부딪힘 라)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됨 마)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함
68) 이해화(1983), “아기장수 전설의 신고찰”, 『한국민속학』 30, 민속학회, p.277.

D.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敗北함

이 유형분석을 위한 수록문헌 대상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표4>. 전설 분석 대상자료

구분	수록문헌	전승지 및 제보자	제보일자	작품명
전설1	현용준 「제주도전설」	A.애월면 고성리 강태언(남·64세)	1975.8.14	김통정 장군
		B.제주시 용담2동 박승남	미상	"
		C.제주상업고등학교 학생 전승규	1960.1.15	"
		D.애월면 고성리 김연(남)	1965.1.25	"
		E.애월면 애월리 박길순(남·80세)	1975.7.18	"
		F.애월면 광령리 고인훈 부친	1975.2.19	"
전설2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G.애월읍 고성리 강정(남·61세)	미상	김통정 장군
		H.애월읍 고성리,김병수(남·82세)	미상	갈구미(渴玖槐)
전설3	김영돈 등 「제주설화집성」(I)	I. 애월읍 어음리 김승추(남·76세)	1984.7.18	김통정(I)
		J.한림읍 용포리 장덕기(남·76세)	1984.9.5	김통정(II)
		K.애월읍 광령1리 고용해(남·45세)	1983.7.27	애기엿개 딸도 들어라
전설4	한국구비문학대계 9-3(제주편)	L.안덕면 덕수리 이화옥(여·80)	1981.7.17	김통정 장군
전설5	한국구전설화9 (제주도편)	M.애월면 수산리 고씨(남·78세)	1964. 8	희뿌리 샘물
전설6	「고성리지」	N. 애월읍 고성리 향토지편찬위원회	1993	김통정 장군
		O. 애월읍 고성리 향토지편찬위원회	1993	안오름호수
보조	제주향파두리항몽유 적지학술조사및기본 정비계획(제주 북제주군)	애월지역을 대상으로 1차자료:문헌자료 2차자료:고성, 광령, 유수암, 장전, 상귀, 하귀지역으로 선정하여 구비전승정도 를 비교함.	2002	제주의 항몽관련 구비전승편 (문순덕)

자료전개의 간략성을 위해 제주도전설을 ‘전설1’, 제주도전설지를 ‘전설2’, 제주설화집성(1)을 ‘전설3’,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전설4’, 한국구전설화를 ‘전설5’, 고성리지를 ‘전설6’, 향파두리학술조사지를 ‘보조’로 지칭한다. 각 편은 전설1A, 전설1B, 전설1C...로 표기한다.

가) 神異한 出生

김통정 전설을 보면 영웅설화의 화소가 거의 들어있다. 고려 개성 출신이다. 사람과 지렁이(또는 지네)의 통정으로 태어난다. 자아 찾기를 시도해서 아버지의 실

체를 알게 된다. 출생의 비밀을 알고 집을 떠난다. 삼별초 군대의 우두머리가 된다. 삼별초군이 멸망하면서 김통정도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한다. 다만 결말이 조금 다르다. 이것은 혁명이 성공하면 영웅이 되나,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서 불행한 최후를 맞는 것과 같다.⁶⁹⁾

① 고려 때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밤마다 남자가 찾아와 실로 몸을 묶어 확인해보니 지렁이었다. 과부는 그 지렁이가 징그러워서 죽었다. 그 후 옥동자를 낳았는데 아이는 온몸에 비늘이 돋고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있었다.(전설1A)

② 김통정 장군의 어머니는 중국 조정승의 딸이라고 한다. 처녀 때 별초당에서 공부하다가 그 자리에 자곤 했는데 밤에 어떤 남자가 출입하여 임신을 했다. 남자의 몸을 실을 묶어 지렁이가 남자로 변하여 찾아오는 것을 알았다. (전설1B)

③ 김통정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비늘이 덮혀 있어서 칼로는 죽일 수가 없었으며...(전설2G)

④ 김통정 어머니가 처녀 때 밤만 되면 청의동자가 와서 동품을 하는데 날이 갈수록 배가 불었다. 명주실로 청의동자를 묶어 확인해보니 지네였다. 김통정은 그녀가 지네와 배합(配合)하여 태어났으며, 이름도 지네와 정을 통해서 낳았다고 하여 김통정이라 했다. (전설3J)

⑤ 김통정은 진나라 진씨왕 이라고도 했다. 옛날에 부잣집의 딸이 있었는데 밤마다 어떤 도령이 와서 자고 가는 것을 알아차린 아버지는 명주실을 이용해서 도령이 지렁이라는 것을 알았다. 태어난 아이는 날개달린 장수였는데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다. (전설4L)

⑥ 김통정 장군의 어머니는 과부로서 개성 교외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밤에 꿈을 꾸면 지렁이가 자꾸 와서 어머니를 희롱하다 갔다. 꿈을 꾸 이후로 이상하게 배가 나날이 불어갔다....촌장이 가르쳐 준대로 지렁이 몸에 실을 묶어 정체를 알아보니 지렁이였다....김통정은 자란 후 자기의 아버지가 지렁이인줄 알고 밟아 죽여 버렸다. (전설6N)

⑦ 김통정 어머니는 과부가 되자 지렁이까지 몸을 넘봐 임신을 하게 되고, 통정이를

⁶⁹⁾ 고창석(외)(2002), 전계서, p.66.

낳으니 어릴적부터 조상 없는 자식으로서 남의 천대를 받았다. 김통정은 지령이가 아버지인줄 알고 밟아 죽여버렸다. 꿈에 지령이가 나타나자 다시 한번 밟아 죽이려고 하자 지령이가 ‘그때 자기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1년 안에 地龍이 되어 네가 이 천하를 얻을 것인데 네가 나를 죽였으니 나와 너는 운이 다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통정은 그때서야 아버지를 죽인 불효를 용서 빌었다. (전설60)

⑧ 보조

i) 김통정 어머니는 개성 출신으로 홀어머니였다. 김통정이 어느 김씨인지 기록이 없고, 다만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밤이면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김통정 어머니와 통정하고 간 것을 이상히 여겼다... 나중에 지령인 줄 알고 김통정은 자기 아버지지도 모르고 죽여 버렸다. 그래서 패배할 때 지령이 죽인 것을 후회했다.⁷⁰⁾

ii) 우리가 어릴 때 전설로 들은 것은 김통정이 아니고 진통정으로 들었다. 김통정 어머니가 밤에 자는데 자꾸 어떤 큰 짧은 남자가 와서 같이 자고 갔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말하니까 “도포자락에 바늘로 실을 꿰매노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나중에 남자가 지령이란걸 알았다... 지령이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령이 ‘진’자해서 진통정이라 했다.⁷¹⁾

iii) 김통정의 출생 전설은 못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장군이고 몸에 비늘이 있고 날개가 있었다고 들었다.⁷²⁾

iv) 김통정은 몽고인인데 저항해서 한반도로 들어온 몽고왕족이라고 들었지만 어느 지역 출신인지는 확실하게 들은 이야기가 없다. 그 가족관계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몽연합군에 밀려서 진도까지 왔다가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탐라에 왔다는 정도이다.⁷³⁾

위의 자료들에서 보면 김통정의 어머니 신분을 과부, 중국 조정승의 딸, 처녀, 부잣집의 딸, 몽고왕족으로 묘사하면서 김통정의 출생을 지령이 또는 지네와 交婚하여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神異스러운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지령이 또는 지네로 교혼하여 태어나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김통정의 출생은 후백제 시조 견훤의 출생담을 취하고 있으며, 아래자전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곧 김통정이 새로운 통치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 신성성과 당

70) 제보자:진용성(남,1919생, 84세) 북군 애월읍고성리 317,농업;강정(남,1923생,80세),북군 애월읍 고성리 365 농업;문선희(남 1937생,65세) 북군 애월읍 고성리 1245-7,농업

71) 제보자:강중희,남,1939년,67세, 북군 애월읍 유수암리 2019,농업

72) 제보자:양계수,남,1924년생,79세, 북군 애월읍 광령1리 1261,농업;강조숙(여,1925년생,78세)북군 애월읍 광령1리 1261,농업

73) 제보자:강량표,남,1928년생, 75세), 북군애월읍 장전리 1131-2, 농업; 고이열,남,1926년,77세, 북군 애월읍 장전리 310-1, 농업; 안태영,남,1927년,76세, 북군 애월읍 장정리 147,농업)

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옛 백제 시조신화를 끌어와 획득했다는 것이다.⁷⁴⁾

야래자형 설화는 이류교혼담이라고도 하며, 여기서 남자의 정체는 용·구렁이·거북 등 물과 관련된 동물이라는 점에서 水神으로 신성시했던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야래자 설화는 水父와 地母사이에서 시조가 출생한다는 신화유형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설화는 水神神話의 변이형태이며, 동·식물 숭앙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야래자 설화를 서대석은 水父地母型 신화라고 파악하고 있다.⁷⁵⁾ 김통정이 성산면 성산리 본향 장수당본풀이에서 성산 마을의 물혈기를 파서 샘물통을 파고 인간들이 살 수 있게 하였다는 점으로 보면 샘물을 제공하는 수신적 성격이 엿보이며, 이런 결과 부정적으로만 인식했던 애월지역 당신본풀이와는 달리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전설1A’는 지렁이와의 탄생이야기를 하면서 ‘通情’이라 이름을 붙이게 된 연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전설3J’는 다른 전설과는 달리 정을 통한 대상이 지렁이가 아니고 ‘지네’로 바뀌었을 뿐 다른 이야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전설1B’와 ‘보조(iv)’만이 어머니의 출신지를 중국 또는 몽고왕족으로 설정하여 ‘귀족적 영웅’형의 ‘고귀한 출생’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결국 김통정이 평범한 서민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신분제 사회에서 벼슬을 할 수 없는 좌절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인물이 탄생을 의미하며, 결국은 반역행위를 일으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비운의 장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중들은 ‘장수발자국’을 남기게 하면서 ‘민중적 영웅’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설4L은 김통정과 진시왕(중국의 왕)을 같은 인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를 하나의 국가로 인식한 결과이다. ‘제주’라는 작은 섬을 大國과 상대적인 세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진시왕의 화소는 고종달 단막설화에서도 등장한다, 결국 이 설화에서는 大國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저항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 전설은 안덕면 덕수리에서 채록된 자료로서 광정당 당신화가 채록된 지역과 같은

74) 권태효(1999), 전계서, p.179.

75) 서대석(1985), “백제신화연구”, 「백제논총」 1집, 백제문화개발연구소, pp.40~50.

곳이다. 당신화에서는 김통정이 토착당신에게 정치되는 모습으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지만 전설에서는 김통정을 긍정적 존재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설6N’이나 ‘전설6O’에서는 김통정이 자신의 아버지가 지령인 줄 알고 일부러 발로 밟아 죽이는 반면, ‘보조2(i)’자료에서는 아버지가 지령인 줄 모르고 발로 밟아 죽여 버렸다. 어쨌든 1년 안에 地龍이 될 뻔한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은 결국은 시운이 다되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영웅의 일생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다.

김통정의 아기장수적 면모는 김통정이 날개가 돋아있고 온 몸이 비늘 또는 갑옷을 입고 있으며 도술을 쓸 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제주 사람들이 아기장수를 탄생시킨 저변에는 제주가 큰 인물이 날 수 없는 땅이지만 그러한 인물이 나와서 현실을 개혁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 아기장수의 출현은 제주 사람들의 소망이며, 왕정체제 하의 고정된 사회 관념을 거부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제주의 아기장수형 전설은, 아기장수가 전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아기장수의 날개만이 거부되는 경우, 아기장수를 수용하는 세 유형으로 각각 변이되었다.⁷⁶⁾ 이중 셋째 유형은 부모들이 아기장수의 비밀을 숨겨버리는 경우이다. 김통정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김통정은 민중의 입장에선 결국 장수로서 패배한 인물로 나타나고, 역사서에는 난을 주도한 역적의 우두머리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 사람들에게는 수용될 수 있었으나, 역사가 이들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中世 봉건질서를 허물 수 있는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던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후에 다시 태어나 현실을 개혁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을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여운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당신본풀이에서와 같이 전설에서도 말(馬)이 등장하고 있는데, 말은 아기장수의 비범한 출생과 함께 신이한 능력을 지닌 말로 탄생하여 앞일을 예시해주었지만, 아기장수의 출현을 용납하지 못하는 지배집단에 의해 결국 비극적인 죽음과 함께 울부짖으며 사라지고 만다. 민중들은 말을 비범한 인물의 탄생을 미리 알고, 민중들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로 형상화시켰지만 결국은 좌절하고

⁷⁶⁾ 현길인(1981), 전계서, p.124.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말은 당신본풀이에서나 전설에서도 아무도 잡지 못하는 비범한 용마를 김통정만이 잡아타고 장수로서의 행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의 탄생을 비늘과 날개가 달린 아이, 혹은 매로 설정된 모습으로 나타내면서 非日常的 탄생담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신이한 출생담은 앞으로 전개할 인물의 비범성과 탁월한 능력을 말해주는 이야기의 대전제가 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나) 卓越한 能力을 통한 活躍

이 단락은 김통정 설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토성 쌓기에 토착민들을 동원시켜 삼별초와의 갈등양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야기의 주인공을 범인이 지닐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소유자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역사적인 사실과 설화적인 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단락으로서 민중들의 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① 김통정은 자라면서 활을 잘 쏘고 하늘을 날며 도술을 부렸으며,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항바들이를 발견하고 여기에 토성을 쌓았다. 흙으로 내외성(內外城)을 두르고 안에 궁궐을 지어 스스로 ‘해상왕국’이라 하였다. 그를 잡으러 오는 배들이 멀리 보이면 성위에 재를 뿌리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매달아 성 위를 달리게 했다. 말꼬리에 달린 빗자루는 재 먼지를 쓸어냈고, 먼지가 뿌옇게 솟아오르자 침범해 오는 병사들은 앞을 볼 수 없어 물러나곤 했다. (전설1A)

② 김통정 장군이 활을 쏘는 자국이 지금도 고성리엔 남아 있다. 거기에는 화살도 박혀 있었는데, 약 20년 전에 누구 그 화살을 빼어 버렸다고 한다. (전설1E)

③ 김통정 장군이 백성을 시켜 토성을 쌓을 때는 몹시 흉년이었다 한다. 그래서 역군들이 배가 고파 인분을 먹었다. 자기가 쭈그러 앉자 똥을 싸고 돌아앉아 그것을 먹으려고 보면, 이미 옆에 있던 역군이 주워 먹어 버려 재 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전설1F)

④ 김통정 장군은 고려말 궁지에 몰린 삼별초 일파를 인솔하여 제주도에 들어왔다. 도민들을 동원하여 토성을 쌓는데 오랜 시일이 걸렸고, 흉년이 들어 역군들이 굶주림에 허덕였다. 그래서 역군들이 인분도 다투며 먹었다고 한다. 김방경이 나타나면 제주도민에게 재(灰)를 토성위에 뿌리게 하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매어 먼지를 일으켜 사방을 분간할 수 없게 한 다음 후퇴하게 하곤 하였다...위협을 느낀 김통정은 쇠방석이 바다 위에 뜨자 날개를 벌려 날아가 쇠방석위에 앉았다.(전설2G)

⑤ 중국의 천자는 제주의 신기한 말을 잡아 오도록 김통정을 보냈다...말이 비범하여 한번 울면 천지를 진동하였으며, 김통정은 비범한 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서울에 진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금대신 빗자루와 재를 받았다. 중국에서는 도술을 부리는 신장을 파견하여 김통정을 잡아오도록 했다. 그러나 김통정은 재를 뿌리고 빗자루를 말꼬리에 매달아 먼지를 내면, 온 섬이 안개에 쌓여 상륙 할 수가 없도록 교란시켰다.(전설3I)

⑥ 김통정 장군이 여·몽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낯쇠 같은 것들을 전부 모아다가 이중삼중으로 철문을 해서 성을 지키는데 연합군이 그 성을 공략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패하게 되자 김통정 장군은 관탈섬으로 날아갔다. (전설3K)

⑦ 관군이 이를 진압하려고 군사들을 끌고 쳐들어오자 진시왕(김통정)은 항바두리 토성위에서 말을 달려 구름이 일게 한 다음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자 진통정이를 잡지 못했다. 그것은 김통정이 게우리 때문에 생겼고, 날개 돋은 장수이기 때문이었다. 쇠옷을 입고 싸움을 했지만, 결국 관군에게 패하자, 무쇠방석을 바다에 던지면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비늘이 솟구쳐 그 틈새로 칼을 맞아 죽었다.(전설4L)

⑧ 김통정 장군이 애월 고성리에 토성을 쌓고 그 지방을 지키고 있었다. 이 성을 쌓는 데 前년에는 흉년이 들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렁이와 땅벌레를 잡아먹었다. 토성이 다 쌓자 김통정 장군은 병사들과 주민보고 재를 모아다가 토성위에 깔라 하고 남은 것은 성 밑에 깔라고 했다. 몽고군이 쳐들어 올 때에는 말꼬리에 빗자루를 매어 성위로 달리게 해서 뽕안 재 때문에 적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다.(전설5M)

⑨ 김통정 장군은 온 몸에 비늘이 있어서 어떤 칼도, 창도, 화살도 몸에 꽂히지 못하였다. 김통정 장군이 힘이 세어 발에 힘을 넣으면 발 밟은 자리에 발자국이 패었다. 항바두리성도 도술로 힘 안들여 쌓은 것이다. 여몽연합군이 내성을 점령하자 김통정 장군은 깔고 앉아있던 쇠방석을 북쪽에 있는 관탈섬으로 던져 새가 되어 날아갔다. 김방경 장군의 부하는 김통정이 도술을 부려 안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전설6N)

⑩ 김통정 장군은 이곳에 흙을 파서 토성 쌓는데 사용하고 판 곳에 호수를 만들어 배를 띄우고 여러 가지 물고기를 방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곳은 못(池)이 되었고, 공무에 시달리면 이곳에 와서 배를 타고 망중환을 보냈다...김통정은 강화도에서 진도로 제주도로 오기까지의 지나간 일을 회상하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적들 생각하며 복수를 다짐했다(전설60)

⑪ 보조

i) 김통정 장군은 고려 때 사람이다. 몽고 침입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항복을 하게 되니까 장군만은 항복을 못 하겠다 해서 그냥 제주로 물 건너 와서 여기서 고성 향과두리까지 와서 성을 닦았다. 토성을 쌓는데 사람들이 강제 동원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대변을 먹기도 했다. 토성을 쌓을 때 고생하고 사람도 많이 죽었다⁷⁷⁾

ii) 토성을 쌓을 때 역군으로 뽑혀가서 고생을 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본인의 대변을 먹을 정도였다. 이렇게 고생했지만, “김통정 죽일 놈 살릴 놈”하면서 원망하지는 않았다.⁷⁸⁾

iii) 토성을 쌓을 당시는 장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고, 그 당시 제주도민이 2만명이 있었다. 제주도 사람이 전부 동원되었다. 토성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 특별히 토성 쌓기에 동원되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힘이 없는 서민이어서 반항할 수 없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똥을 먹었다.⁷⁹⁾

iv) 토성을 쌓을 때 제주지역 사람들이 다 동원된 걸로 알고 있다. 그 당시 제주도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토성 인근 주민은 물론 제주도민이 다 동원되었다고 들었다. 옛날 군대는 특히 고려 군대는 무서워서 거역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삼별초 군대가 고성에 와서 살 때에 서귀포 강정논에 가서 나뭇(벼)을 베어왔다. 당시 제주도에 강정에만 논이 있었다. 그래서 강정사람들도 와서 성을 쌓았을 것이다. 토성을 쌓을 때 식량이 부족해서 자기가 싼 똥을 식기 전에 먹을 정도로 못 살게 굴었다. 자기가 똥 싸서 먹으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먹었다는 말이 있다. 외도 사람들도 와서 토성을 쌓았다고 들었다⁸⁰⁾

v) 향과두리성을 쌓을 때 유수암은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참여했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인근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고 힘든 생활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김통정 장군이 군대식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했는데 먹을 식량이 없어서 자신의 배설

77) 제보자: 양재수(남, 1924년생, 68세), 북군 애월읍 상귀리 107, 농업; 강조숙(여, 1925년생, 78세), 북군 애월읍 광령1리 1261, 농업

78) 제보자: 홍윤배(남, 1935년, 68세) 북군 애월읍 상귀리 107, 농업; 김영숙(여, 1938년, 65세) 북군 애월읍 상귀리 107, 농업

79) 제보자: 강량표(남, 1928년, 75세), 북군 애월읍 장정리 1131-2, 농업; 고이열(남, 1926년, 77세), 북군 애월읍 장전리310-1, 농업; 안태영(남, 1927년, 76세), 북군 애월읍 장전리 147, 농업

80) 제보자: 진용성(남, 1919년, 84세), 북군 애월읍 고성리 317, 농업; 강정(남, 1923년생, 80세), 북군 애월읍 고성리 365, 농업; 문선희(남, 1937년, 65세), 북군 애월읍 고성리 1245-7, 농업

물을 남이 먼저 먹을까 봐서 식기 전에 빨리 먹을 정도였다고 한다. 실제로 먹었다는 것은 아무리 전설이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지만 그 정도로 고생했다. 그리고 기록상 2년 만에 토성을 쌓았다는 것은 의심된다.⁸¹⁾

원종 12년 5월 丁丑(15일)에 진도가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게 함락되자, 김통정은 잔여 세력을 이끌고 그들의 최후의 보루로 지켜오던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었고, 삼별초는 진도에서의 실패를 계기로 많은 병사를 잃자, 제주에서는 우선 방비시설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내·외성을 쌓았다.

삼별초가 쌓았던 내·외성은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古跡條에 古土城·古長城·缸波頭古城·涯月木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중 구비물에 나타난 토성이란 외성인 古土城인데, 이 토성은 언덕과 하천을 따라 자연 지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주위 15리에 달하는 성을 쌓았던 것으로 보이며, 성 위에는 항상 나무를 태운 재를 뿌려 놓았다가 적이 침공할 때 연막전술을 썼다고 한다. 즉 말 꼬리에 대비를 매달아 달리게 함으로써 자연히 재가 하늘로 날아올라 연막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성을 축성하기 위하여 삼별초는 도민 각 호당 빗자루 한 자루와 재 한말씩을 거두었고, 또 축성과 진지구축에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였으며, 자신의 인분도 먹기 어려웠다는 고통스런 이야기가 문헌자료(③,④,⑧)와 실지 현장조사자료(보조)에서 아직도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자료에서 보면, 개경 정부와 대립하는 삼별초에게 제주민은 거의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어 반감이 더 가중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신의 인분을 먹었다거나, 지렁이와 땅벌레까지 잡아먹었다는 내용은 실제로 그리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생존의 위협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생존이 위협을 받았을 때의 사회상황이 김통정 시절과 결부되어 전승되는 과정에서 굳어져버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려사』에는 삼별초 난이 평정한 직후에 제주민들이 흉년으로 겪었던 참혹한 생활상을 기록한 부분들이 보인다. 「고려사」五行志에 “충렬왕(1277) 3년 3월 탐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 가운데에는 전 가족이 죽은 자도 있었

81) 제보자:강충희(남,1939년생,67세), 북군 애월읍 유수암리 2019, 농업

다.”⁸²⁾ 라고 하여 한 집안의 식구 모두가 굶어 죽었다고 할 정도로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하고 있다. 충렬왕 시기는 삼별초란을 평정한 후 4년이 지난 때였다. 이 당시에 이야기가 후대로 전승되면서 그 시기를 김통정 시절이라고 단순히 지칭한 것일 뿐 제주민들에 대한 삼별초의 수탈과 학정에서 비롯된 지독한 궁핍상을 이처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⁸³⁾

김통정이 도술을 부리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나타난 모습은 그의 행적이 영웅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역사적 기록에서의 김통정 행적은 삼별초난을 일으킨 역적, 적당의 우두머리로서 갖은 패악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인물로 기술하고 있으나, 실지 김통정의 영웅적 행위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숭앙을 받았을 것이며, 시대를 거쳐 오면서 민중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다. 민중들은 김통정을 추모하고 숭앙하는 마음과 흥미에서 출생담으로부터 활약상, 죽음에 이르기까지 실제와 다르게 많은潤色을 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설적 인물 김통정은 날개달린 아기장수로 신이한 인물로 탄생하였으며, 비늘이 돋고 갑옷을 두른 장수적 기질로 도술을 부리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범한 장군으로 형상화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제 인물 김통정과 민중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화해 있는 전설상 인물로서의 김통정과 비교는 이야기를 향유하고 있는 민중들의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김통정 이야기 중에 나타나는 설화적 요소들은 민중들이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전설적 인물로 화한 김통정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민중들이 지니지 못한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성위에 재를 뿌리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매달아 먼지를 뿌영게 일으키게 하고 침범해오는 병사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나(①,④,⑤,⑥,⑦,⑧,⑨), 위협을 느낀 김통정이 쇠방석을 바다 위에 던져 날아갔다고 하거나(④,⑤,⑦,⑨) 온 몸에 비늘이 덮여 있어 어떤 칼도 화살도 몸에 꽂히지 않았으며(①,④,⑤,⑦,⑧,⑨) 항과두리성도 도술로 힘 안들여 쌓았다고(⑨) 민중들은 말하고 있다. 즉, 이야기 속에서 김통정은 일반인으로서의 행할 수 없는 奇事異蹟을 자유자재로 행하는 초능력을 가진 영웅으

82) 《高麗史》권 제55 志제9 五行3.“忠烈王三年三月 耽羅大饑 民有闔門而死者”

83) 권태효(1999), p.160.

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역사적 실제 인물이 이야기 속에서는 지상적 차원을 넘어선 신통력과 도술을 지닌 초월적 능력의 소유자로 변신한다. 즉, 범인이 가질 수 없는 豫知力과 慧眼이 있으며, 현실적 時空을 초월해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⁸⁴⁾

여기서 현실적 차원을 넘은 신통력과 도술을 부린다는 행위는 김통정이 초월적 세계에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겪는 현실적 갈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공감대가 커진 까닭이다. 김통정이 행하는 도술과 초능력은 이야기를 향유하는 민중들의 현실적 갈등과 삶의 고뇌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영웅은 숨어 지낼 수 없고, 반드시 도술을 사용해 세상과 대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異人과는 구별된다. 귀족적 영웅은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나 승리를 거두는 것이 예사이고, 미천하거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경우는 민중적 영웅인 경우는 패배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탁월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면서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



다) 抗拒를 하지 않을 수 없는 危機에 부딪침

아기장수의 기본적 구조는 출생-죽음의 구조이다. 김통정은 기존질서와의 대결을 거쳐 결국 죽음에 이른다. 김통정은 태어나서 여러 가지 신이함을 보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장수로서의 기질을 보였으나, 지배집단과 토착민과의 부조화로 인해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만다. 다음의 설화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한다.

① 김방경 장군의 군대가 김통정을 잡으러 오자...전세는 위태로웠다. 김통정 장군은 항급히 사람들을 성안으로 들여 놓고 성을 굳게 닫고 저항했으나, 업저지를 성밖에 둔 채 성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업저지는 서운했다. 김방경 장군은 아기업개의 도움으로 성안으로 쳐들어갔고, 김통정 장군은 깔고 앉았던 쇠방석을 수평선 멀리 던져 놓고 날

⁸⁴⁾ 전혜경(1983), “인물전설의 구조와 사상배경에 관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91.

아가 그 위에 앉았다. 김방경 장군은 또 업저지의 지혜를 빌어 부하 장수를 새와 모기로 변하게 해서 김통정 장군의 뒤를 따라갔다(전설1A)

② 김통정의 득살이(머슴)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백발노인이 나타나 장군을 잡자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머슴은 이 꿈 이야기를 잡자는 김통정 장군에게 말하러 가니, 평소 오만한 기질이 있는 머슴이라, 장군은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쫓아 버렸다, 이것이 원한이 되어 김방경 장군에게 김통정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다.(전설1C)

③ 김방경 장군이 쳐들어오자 전세의 불리를 느낀 김통정은 후퇴해서 성을 닫아 버렸다.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아기업저지 한 사람이 성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김방경 장군은 아기 업저지의 지혜를 빌어 성안으로 쳐 들어갔다.(전설2G)

④ 중국에서는 도술을 부리는 신장(神將)들을 과견하였는데, 뒤늦게 이를 안 김통정은 성문의 철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꼼짝도 않았다. 신장들이 성안에 들어갈 수 없어 서성거리고 있자,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어느 업저지가 솥으로 성문을 녹이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다.(전설3I)

⑤ 김통정 장군이 여·몽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늦쇠 같은 것들을 전부 모아다가 이중 삼중으로 철문을 해서 성을 지키는데 연합군이 그 성을 공략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김통정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애보개를 첩실이라고 내쫓아 버리니 고개 밖에서 맴돌다가 여·몽 연합군에게 철문 부수는 방법을 말해줘서, 그 성을 공략했다...이 이야기에서 ‘애기업개(업저지) 말도 들어라’라는 말이 유래되고 있다.(전설3J)

⑥ 보조

i) 삼별초군이 토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아기업개를 남겨두고 성문을 닫아 버렸다. 연합군이 성문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을 때 아기업개가 말하길 두 일퀘 열나흘(14일) 동안 불을 때면 쇠문이 녹아서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해준다. 아기업개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들은 결과 마침내 쇠물이 녹아서 내성(궁궐)으로 쳐 들어갈 수 있었다.⁸⁵⁾

ii) 김방경 장군이 성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도저히 부술 수가 없었다. 당시에 철문을 했던 모양인데 “철문을 녹이면 되지 않느냐?”하는 아기업개 말을 듣고서 그렇게 했더니 철문을 녹일수가 있었다. 아기업개 말을 듣고 토성을 함락시켰다.⁸⁶⁾

85) 제보자:진용성(남,1919생,84세),북군 애월읍 고성리 317, 농업;강정(남,1923년,80세), 북군 애월읍 고성리 365,농업;문선희(남,1937년,65세)북군 애월읍 고성리 1245-7,농업)

86) 제보자:강중희(남,1939년,67세),북군 애월읍 유수암리 2019,농업

iii) 김통정 장군이 토성의 철문을 걸어 잠갔다. 김방경 장군은 아기업개의 도움으로 철문을 부수고 삼별초군을 무찔렀다.⁸⁷⁾

‘적을 돕는 아기업개’는 당본풀이뿐 아니라 전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화소이다. 당본풀이에서는 유독 고내본향①과 고내본향⑥에서만 ‘여인(계집아이)’로 등장하고 있고, 전설에는 모든 문헌 및 현장조사 자료에 거의 나타나고 있어 ‘아기업개’의 화소는 삼별초 항쟁의 직접 피해를 입은 애월지역에서만 전승되는 양상인 것 같다. 당본풀이에서 일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전설에서의 아기업개의 설정이 당본풀이에 흘러 들어가 혼착된 것으로 보인다.

권태효⁸⁸⁾는 아기업개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호국여산신으로서 적(김방경장군이 나 중국에서 파견된 장수)들에게 죄문을 녹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여산신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다. 호국여산신적 존재는 나라에 전쟁이나 변란이 생겼을 때 출현하여 나라를 지켜주는 존재로, 또는 상반된 개념으로 신격인식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아기업개는 바로 김방경을 돕는 호국여산신이고, 김통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적 신격인 셈이라고 하고 있다.

또 임철호⁸⁹⁾는 김통정 어머니가 비밀을 감추고 김통정을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를 방해자로 설정했을 것이며, 결국은 지배집단에 합세한 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통정이 패하게 된 것은 토착민들의 배반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당본풀이와 전설에서 등장하는 ‘여인’, ‘아기업개’, ‘머슴’의 모티브는 전부 토착민들을 상징하며, 결국은 삼별초와 지역민들과의 갈등 대립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삼별초가 제주도에 입거하여 약 2년 10개월 동안 항몽하는 동안에 제주도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방어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축성과 진지

87) 제보자:양재수(남,1924년,79세),북군 애월읍 광령1리 1261,농업;강조숙(남,1925년,78세),북군 애월읍 광령1리 1261,농업

88) 권태효(1999), 전계서, p.182.

89) 임철호(1996),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변이”, 「구비문학 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p.226.

구축에 도민을 동원하여 부역을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제주도는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는데 가중된 부역은 제주도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을 것이고, 또 田作피해와 농번기에 농사를 제대로 못하는 실농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원은 일본정벌을 위한 兵站基地로 제주도를 이용하기 위해 도민들로 하여금 군마와 가축을 사육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선박을 건조하게 하는 등 제주도민에 대한 착취도 매우 심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삼별초가 평정된 후 제주도는 원의 직속령이 되어 약 1백년 동안 직접 간접으로 그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역사상 제주민이 겪은 수난도 매우 컸을 것이다.

김통정은 날개 돋은 아이로 태어났으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숨겨 나중에는 결국 나라에 반역하는 장수가 되었다. 여기서 반역했다는 것은 관찬사서에서 말하는 장수의 반역행위를 일컫는다. 민중들은 이들의 날개를 은닉하여 장성한 후 도술을 부릴 줄 아는 신비한 인물로 형상화 했지만 역시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인물로 몰락시켰다. 그렇다면 제주민들이 민중의 영웅으로 생각했던 김통정을 패배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앞 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삼별초와 도민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이렇게 삼별초의 제주 입거 후 여러 가지 사건과 인식으로 인해 제주민들은 김통정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아니 하였으며, 그러한 인식의 결과 토착민을 상징하는 ‘아기업개’나 ‘머슴’을 등장시켜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김통정은 날개달린 장수로서 도술을 부리고 토성을 쌓아 적들을 교란시키며, 여·몽 연합군과 치열한 항쟁을 계속하였으나, ‘아기업개’의 반란으로 이미 삼별초의 몰락은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설1C’자료는 특이하게 김통정을 배반한 것이 아기업개가 아니라 머슴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기업개든 머슴이든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보잘 것 없는 신분이다. 단순한 동기 때문에 한 장군이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배반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⁹⁰⁾ 문헌자료와 현장조사(보조자료)자료에서 보이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중요 화소는 아직도 그대로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⁹⁰⁾ 고창석(외)(2002), 전계서, p.64.

라)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함

신이(神異)한 인물들인 장수는 역시 사회에 수용되지 못한 채 거부되기 마련이다. 김통정 개인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그 자식들-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배속에 든 아기들까지도 태어나기 전에 죽음을 당한다. 이는 역적의 자식은 역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 아기도 낳기 전에 죽여 버려야 된다는 거부의 극렬함을 보여 주면서 장수의 비극을 첨예화시키고 있다.⁹¹⁾

① 김방경 장군은 토성 안으로 들어가 김통정 장군의 처를 붙잡아다 임신여부를 물에 비추어 보고 임신했음을 알았다. 남겨 두면 후환이 있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죽였는데 매 새끼 아홉마리가 죽어 떨어졌다. 날개가 돋친 김통정 장군의 자식이니 매 새끼로 임신된 것이었다. 김통정 장군의 처를 죽이니 그 피가 일대에 흘러내려 흙이 붉게 물들었다. (전설1A)

② 아기업개의 도움으로 김통정 장군을 죽인 김방경 장군은 그 공을 갚으려고 아기업개를 찾아갔다. 아기업개는 임신해 있었고, 그 아이가 김통정 장군의 아이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기업개를 죽이고 배를 갈라보니 비닐이 달리고 날개가 돋는 아이가 한참 파닥파닥 뛰더라 한다(전설1D)

③ 김통정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비늘이 덮혀 있어서 칼로는 죽일 수가 없었으며, 또한 김방경 장군 역시 도술이 능한 장군이였다. 모기로 변해서 김통정 장군 얼굴 주변을 돌다가 김통정이 고개를 든 사이 목을 찔러 죽였다. 김통정 장군이 죽게 되자 애첩과 딸이 적군에게 잡혀 죽을 바에는 자기가 죽이겠다하여 칼로 찔러 죽이니 그 피가 일대에 흘러 오늘의 '흙 붉은 오름'이 되었다. 김통정 장군은 그 동안 제주도민들을 고생시킨 대가로 물이나 먹으라며 발로 바위를 밟자 그 자리에 금방 샘물이 솟아올라왔는데 그 물이 지금의 <장수물>이다. (전설2G)

④ 곧 철문을 녹이고 들어가니, 김통정은 관탈점으로 날아가 버렸다. 신장들은 모기가 되어 쫓아갔다. 김통정의 귓가를 맴돌며 앵앵거리자 김통정은 모기를 때려 죽이려고 한 손을 들었다. 이 때 김통정의 몸에 비늘이 들려지자, 다른 한 신장은 들려진 비늘 사이로 칼을 내려쳐 죽였다. 죽으면서 백성들에게 물을 먹으라고 토성을 뛰어내리자 돌이

⁹¹⁾ 현길인(1981), 전계서, p.147.

벌어지면서 샘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지금 장수물이다. (전설3I)

⑤ 꽤하게 되자 김통정 장군은 관탈도로 날아갔다가, 다시 붉은오름에서 자결하였는데 그 산이 붉게 물들었다고 하여 붉은오름이라 지워졌다. 후에 신이 되어서 승천했다는 말도 있고, 중국 땅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다. 이 이야기에서 ‘애기엿개(엿저지) 말도 들어라’라는 말이 유래되고 있다. (전설3K)

⑥ 관군이 이를 진압하려고 군사들을 끌고 쳐들어오자 진시왕(김통정)은 항바두리 토성위에서 말을 달려 구름이 일게 한 다음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자 진통정이를 잡지 못했다. 그것은 김통정이 게우리 때문에 생겼고, 날개 돋은 장수이기 때문이었다. 쇠옷을 입고 싸움을 했지만, 결국 관군에게 패하자, 무쇠방석을 바다에 던지면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비늘이 솟구쳐 그 틈새로 칼을 맞아 죽었다. (전설6L)

⑦ 적군이 아닌 줄 안 김통정 장군은 안심하여 잠이 들고 말았는데, 파리모기떼가 머리와 목에 앉아 귀찮게 굴자 무의식중으로 고개를 쳐든 순간 목 비늘이 위로 올라갔다. 그 순간 독수리로 변한 김방경이 다시 모기로 변하여 김통정 장군의 목을 쳐서 떨어뜨려 다시 목이 붙지 않도록 재를 뿌림으로 김통정 장군은 영원히 죽고 말았다.(전설6N)

⑧ 잠자리에 든 김통정은 꿈속에서 지렁이가 실을 감은 채 돌덩이 흙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김통정 장군은 다시 한번 밟아 죽이려고 하자 지렁이가 ‘그때 자기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1년안에 地龍이 되어 네가 이 천하를 얻을 것인데 네가 나를 죽였으니 나와 너는 운이 다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김통정은 그때서야 아버지를 죽인 불효를 용서 빌었다...통정 어머니는 시운이 다 된 것을 알았다.(전설6O)

⑨보조

i) 김통정이 마지막 전투에서 도망치다가 땅을 밟았는데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다. 여기를 장수발자국이라 하고 지금도 시원한 물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김통정이 관탈섬으로 갔다. 거기서 모기로 변한 김방경 장군의 땀에 넘어가서 죽었다⁹²⁾

ii) 김통정 장군이 관탈섬에서 죽었다고 들었다. 김통정 장군이 키가 아주 커서 발 한 짝은 관탈섬에 놓고, 다른 한쪽으로 밟은 곳이 장수발자국이라 했다. 그렇게 거인이라고 들었다. 그 장군이 밟은 자리에서 나오는 물을 장수물이라 들었다.⁹³⁾

iii) 김통정 최후는 모기가 와서 앵앵거리서 그 모기를 잡으려고 팔을 들었는데 그때

92)제보자:강충희(남,1939년,67세),북군 애월읍 유수암리 2019,농업.

93)제보자:김동진(남,1938년,65세),북군 애월읍 하귀2리 1311-4 상업;김정자(여,1940년,63세),북군 애월읍 하귀2리 1311-4,상업;김용진(여,1928년,75세),제주시 용담2동 930-4.

칼에 찔려 죽었다. 그곳이 붉은 오름이다. 방석을 바당(관탈섬 정도)에 던져서 그곳으로 날아가서 죽었다.⁹⁴⁾

iv) 김통정이 새로 변해서 추자도로 뛰어갔다. 그러니까 김방경 장군은 모기가 되어서 따라갔다. 김통정 몸에 비늘이 있어서 칼이 안 들어가니까 김방경은 모기로 변해 앵앵 거리면서 쫓아가니까 김통정이 팔을 들 때 비늘 틈으로 칼을 찔러서 죽었다.⁹⁵⁾

김통정은 날개 달린 비범한 장수로 태어났으나 결국 그의 최후는 비극적으로 끝난다. 이러한 비극적 죽음은 김통정의 아내와 그의 자식의 죽음 부분에서 다시 이어짐을 볼 수 있다. 민중들은 비록 한번의 장수의 좌절이 있었으나, 그의 자식으로 하여금 또 다른 변혁을 시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거둬낸 아기장수의 설정과 좌절은 그만큼 김통정에 대한 민중의 염원이 절실했다는 것이며, 그 좌절감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⁶⁾ 이는 역적이 될 소지가 있는 인물은 싹부터 마멸시켜 버리고, 역적의 혈족은 삼족까지 멸하는 당시의 사회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아기장수는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이지만 민중의 입장에 보면 구원자이며 해방군으로 보고 있다.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해주고, 새로운 세상을 변혁해줄 장수를 민중들은 염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통정은 패하여 죽음을 맞이하였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통정의 아기장수적 면모는 결국 민중의 영웅은 패하여 좌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김통정의 최후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열전 권17권 <김방경> 조에는 김통정이 산속으로 도망해 들어간 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종적을 말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배중손> 조에는 김통정이 자살하였다고만 하였다. 또 《고려사절요》 제19권 <원종순효대왕> 조에서는 김통정이 산중으로 도망하였는데, ‘윤월에 탐라에 주둔하였던 장군 송보연이 적 괴수 김통정의 시체를 얻어 보고하였다’고 하면서 김통정의 자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지만 민중들은 김통정의 죽음에 대하

94) 제보자: 강량표(남, 1928년, 75세), 북군 애월읍 장전리 1131-2, 농업; 고이열(남, 1926년, 77세), 북군 애월읍 장전리 310-1, 농업; 안태영(남, 1927년, 76세), 북군 애월읍 장전리 147, 농업.

95) 제보자: 진용성(남, 1919년, 84세), 북군 애월읍 고성리 317, 농업; 강정남, 1923년, 80세), 북군 애월읍 고성리 365, 농업; 문선희(남, 1937년, 65세), 북군 애월읍 고성리 1245-7, 농업

96) 권태효(1999), 전계서, p.181.

여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다. 단지 김통정을 죽으면서까지 백성에게 먹을 물을 제공해주는 수신적 존재로 형상화시키고 있어 장수의 재출현에 대한 예감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통정의 죽음이 제주민의 좌절이라면 그의 모호한 죽음에 대한 처리는 제주민의 좌절에 대한 저항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웅의 몰락 전설은 전체적 힘의 횡포에 의한 역사적 상황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영웅의 몰락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회구하는 일반민중의 꿈의 좌절과 통하는데 그 꿈은 증거물을 제시함으로써 영웅의 출현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영웅 출현에 관한 가능성은 어디에 장수 발자국이 있다든가, 어딘가 장군수가 있어서 그걸 마시면 장수가 될 수 있다든가, 누가 혈을 찔러서 장수가 태어날 수 없게 되었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두루 포괄한다. 영웅은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전설60에서는 龍馬대신 地龍이 되어 승천할 뻔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아기장수의 죽음과 동시에 출현하는 용마는 아기의 비극과 모든 백성들의 비통함을 대신하여 울다가 승천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룡으로 승천할 수 있는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결국은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민중들이 원하는 사회의 꿈은 좌절해버렸다. 결국 김통정은 폐쇄된 사회 속에서 때를 잘못 만나 몰락한 장수가 되었으며, 이 비극을 영원히 증언하기 위하여 장수발자국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민중들의 의식은 이 증거물 속에 깔려 있다. 이것을 통하여 민중들은 슬한 아기장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면서 전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폐쇄되고 억압된 사회구조를 변혁하려다가 좌절한 많은 인물들을 기억하게 한다.

김통정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샘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수신적 존재임을 나타낸다. 앞장 ‘神異한 출생’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김통정의 출신을 진시왕(중국의 왕)으로 설정되어 있는 화소는 제주를 중국과 대등한 하나의 국가로 인식한 결과이다. 이는 고종달 단막설화와 비슷한 양상인데 이 설화에서는 중국에서 파견된 고종달이 제주도 전 지역을 단막하여 불모의 땅으로 만들어 돌아가다가 한라산신의 노여움을 사서 그가 몰락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大國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저항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고종달의 단혈 원인은, 제주에서 큰 인물이 날 것을 중국 왕이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주도가 王侯之地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즉 제주를 하나의 국가로 인식한 결과이다. 이는 제주도가 고려에 복속되기 이전의 독립국이었던 사회상황을 설명한다. 한 골이 모자라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가 나지 않게 되었다든가, 화순리 산방산 용머리를 단혈했다는 전설 등은 왕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땅의 기를 끊어버린 것이다.

제주는 장군기가 서린 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중국의 왕은 왕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고종달을 파견하여 제주 전 지역을 단혈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차귀섬에 이르렀을 때 한라산 수호신이 매로 화하여 날아와 갑자기 폭풍으로 변하여 고종달이 탄 배를 침몰시키고 말았다는 것은 제주민의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이다. 제주 곳곳을 단혈하여 떠나는 고종달을 제주민은 가만 놔주지 않고 쫓아간 것이다.

이런 호종단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김통정 이야기와 서사구조가 비슷함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단맥설화나 아기장수설화는 설화의 구조와 갈등양상만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 보다는 민족적, 민중적 경험인 역사적 맥락 위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⁹⁷⁾ 즉, 단맥설화가 중국의 침략으로 인해, 민족적 수난을 당하자 중국의 진시황, 임란때의 이여송과 왜병 등을 등장시켜 민중들의 민족의식으로 계속해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외세에 대한 민족적 대응의지가 스며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호종단 전설에서 큰 인물이 날 것을 우려해 단혈을 했다는 것은 김통정 전설에서 제주가 큰 인물이 날 수 없음을 합리화한 것이며, 또한 국란을 이겨낼 인물이나 장수를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중들의 갈망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중들은 이러한 전설을 만들어내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정신적 극복을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통정의 민중영웅으로서의 출현가능성에 대한 증거사실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7) 임철호(1987), "구비설화에 나타난 민족의식과 민중의식", 「논문집」 제16집, 전주대학교, p.29.

<표5>. 민중영웅과 증거물과의 관계

구 분	영웅가능성	증거물
A.신이한 출생	야래자형 출생, 수신적존재	장수 발자국
B.탁월한 능력을 통한 활약	아기장수적면모,온몸에 비늘과 날개가 돋아있음, 도술을 부림	토성, 환해장성, 살맞은돌, 돌쩌귀, 용성물, 구시물 등
C.항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에 부딪침	아기업개의 방해로 좌절	속담유래, 바금지오름
D.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함	증거는 남기고 행방불명	죽으면서 샘물을 제공(장수물) 붉은오름, 안오름의 유래

2) 작품별 변모양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중적 영웅이야기’는 귀족적인 영웅의 일생과는 달리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이기에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비범한 인물임을 암시하면서 고난으로 시작된다. 고난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평민적 영웅 유형의 일관된 구조이다. B의 탁월한 능력이 A를 부정하면서 희망적인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할 듯이 보이나, C와 D에 이르러 고난이 연속되면서 D에서 비참한 결말로 끝난다. 이는 평민적 영웅은 역사적으로 실패와 고난이 계속됐다는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1)탁월한 능력을 지닌 아기장수로 태어나, 2)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3) 죽음과의 싸움에서 끝내 패배하였지만 죽으면서까지 증거물을 남기는 행위”는 좌절한 민중의 꿈을 전설적 경이를 통해 승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물을 통해 민중들은 비극의 정신적 극복을 체험하게 되고 전설은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설에 나타난 민중영웅의 단락을 중심으로 각편의 전승양상을 ‘문헌자료’와 ‘보조(애월지역 현장전승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야기판에서 어떻게 내용이 변이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가) 문헌자료

구분	전설1						전설2		전설3			전설4	전설5	
	A	B	C	D	E	F	G	H	I	J	K	L	M	
비정상 출생	지령이	중정팔령교	국송도이통	조의지와	X	X	X	X	X	중국의대신	지네와의	X	진나라왕.이통	X
탁월한 힘과	은비날로된재용을	에겨이매정	X	X	X	X	은몸이로	X	은몸에겨드	X	X	날개장수.을	이를적폐	
위부기	에대	X	적을늘	적을늘	X	X	에저도	X	적을늘	X	적을늘	X	X	
뜻이못	을지고	X	자식지	X	X	추시이	생물제	여계제	신에합	X	통에패	관개패	추시이	
지명유	장수	X	X	X	화살터	X	*붉은장자	햇부리	장수물	X	붉은	X	X	

* 전설6의 '고성리지'는 제보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위의 비교표에서 제외함.

전설1 자료는 가장 많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플롯이 정연한 것은 A이다. A의 자료는 다른 자료들과 달리 김통정에 대해 전해지는 화소가 거의 종합적으로 들어있으며, 가장 서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①과부의 임신과 지령이 부친-비늘과 날개가 달린 신이한 출생 ②도술 등을 부리는 뛰어난 성장과정 ③고성리의 왕국건설과 비참한 죽음의 단계는 고대소설에서도 보이는 일대기적 구성으로서 우리나라 설화 전반에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왕국건설과 아기업개의 배신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왕국건설이 갖는 의미는 당시 몽고와 끝까지 항전하던 삼별초가 몽고의 찬탈과 잔학상을 보고는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김통정은 그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 구전되어 오는 동안 왕국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몽고군의 잔학성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통정의 처와 자식까지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여 죽였다고 하는 것은 금덕리당 본풀이에서도 나오는 내용으로 이때 김통정이 왜놈들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같은 전설집에 실려 있는 'B~F'자료는 수록년도가 오래되어도 아주 짝막한 이야기들로 A에서 여러 이야기가 파생되어 내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는 풍부한 구술내용을 보이던 강태언의 원래 자료에 채록자가 여타 화소들을 보태어 변이된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것은 B의 자료에서 김통정의 어머니의 출신을 중국 조정승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A의 자료와는 출신 성분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전설에서는 평민으로 출생하여 민중영웅의 모습을 보이나, 이 자료에서 만큼은 고귀한 출생의 영웅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민으로 출생한 민중영웅은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론적인 상황을 인정할 수 없어서 고귀한 영웅형으로 변이시킨 것으로 보인다. C는 김통정을 배반한 사람이 '아기업개' 대신 '머슴'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여타 다른 자료에서는 아기업개가 여성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남성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는 모두 제주 토착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착민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은 광정당 본풀이에서처럼 김통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D는 아기업개가 김통정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기업개의 도움으로 승리한 김방경은 그 공을 갚으려고 아기업개를 찾아 갔으나, 김통정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배를 갈라보니 비늘과 날개가 돋은 아이가 파닥 파닥 뛰더라는 것이다. 이는 토착민으로 등장한 아기업개의 방해로 김통정은 결국 패하게 되었지만 김통정의 자식만은 다시 영웅으로 탄생시켜 그 당시 사회상황을 다시 변혁해주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신이한 인물들인 장수는 사회에 수용되지 못한 채 그 자식까지도 거부된다는 극렬함을 보여주면서 장수의 비극을 첨예화 시켰다. F는 토성축성 당시 극심한 흉년이 들어 역군들이 배가 고파 인분을 먹었다는 내용으로 흉년으로 인한 생활고를 나타내고 있다.

전설2의 자료는 앞의 전설1의 자료와 거의 유사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출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김통정이 제주 입거 후 장군으로서 뛰어난 활약

상을 보이고 있으며, 죽으면서 그 동안 고생시킨 대가로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G자료는 김통정이 제주에 입거하게 된 과정과 붉은오름의 유래, 죽으면서 백성들에게 샘물을 제공하는 행적이 그려져 있고, H자료는 ‘갈구미’라는 여인을 등장시켜 장수물의 유래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김통정 이야기와 혼탁되어 그 당시 제주의 어려운 사회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전설3자료 I에서는 비교적 장편으로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김통정의 용마포획, 재를 이용해 도술을 부림, 아기업개의 방해, 중국신장들과의 대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기장수설화와 함께 등장하는 말(馬)의 출현은 민중의 현실상황과 갈등이 표출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적요소가 투영되어 있다. 민중의 이상이며 세계의 초월을 표상한 아기장수이지만 중국에 가서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다. 이것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현실의 제약에 따른 피해의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아기장수의 종말과 함께 더욱 비극미가 두드러지게 된다.

여기서 용마포획은 금덕리 당본풀이에는 김통정의 영웅장수로서의 기질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설에서는 검은말(黑馬)로 등장하여 그 기골이 장대하고 순식간에 한라산과 물장오리를 오고가며 몸을 비비며 우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여 중국 천자국까지 들렸다고 한다. 천자는 제주가 왕후지지의 땅이기 때문에 장군과 함께 등장하는 이 신이한 말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김통정으로 하여금 잡아오라고 하였지만, 비범한 말임을 알아챈 김통정은 자기의 말로 만들어 버린다. 이때 말은 김통정이 자신의 주인임을 알아보고 온순해졌다고 하고 있다.

장우리 훗양 그레 갓어. 간. 들은 흰흔 밤인디, ㄹ만이 그 술남 밭의 그 술남ㄹ지 갓거든게. 아년게 아니라, 아홉시 밤 아홉시 ㄹ넨 저 습으로, 이건 이집 노피 더 흔 늑의 물이라. 홉피 대 가리광 갈기 과작 상 들어오는다, 사름 산 중 몰르고 이늑의 물이 오랑 그 장우리 물을 먹어. 물을 먹으니 그낭에 오란 야개길 부비니 그자 팍 안아 불엇어. 통정이 오란. 여기서 아마도[손으로 뒤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이웃집을 가리키면서 저집만이 뛰엇주게. 발딱 물이 겁난 ㄹ넨, “내 입제다.”하니, 그 물이 ㄹ만이 사. 결국은 낭패 ㄹ넨어도 임시 운이라. 물을 톡 탄 시가로 내려완. 이 물이 고정헝게 나오거든. 거 입짚 만나 노난. 계난 시가로 내려왔어. (전설3D)

설화에서 말은 매우 영리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의리를 지키는 충직한 동

물로 나타난다. 남달리 뛰어난 말은 자기를 부릴 사람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본토에서도 전승된다. <이성계와 馳馬臺>전설에서는 성질이 사나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던, 주인 없는 말이 이성계를 만나자 온순해지고, 그의 조련을 받아 명마가 된다.⁹⁸⁾ 는 이야기가 있다. 설화의 전파를 생각하게 하는 사례이다.

제주에 상륙한 김통정은 비범한 말을 포획하여 백성들에게 포고하여 서울로 진상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세금대신 재와 빗자루를 바치게 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는 말의 울음소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의 말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는 의미는 아기장수의 뛰어난 장수로서의 비범한 인물을 상징하며, 다른 한편으로 말 울음소리는 불행을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기장수는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되면서 장사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민중의 이상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패망하고 만다. 결국 아기장수의 좌절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현실을 말은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J는 아래자형 출생에 대한 이야기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자료들에 비해 지령이 대신 지네로 설정되어 있다. 지령이와 지네는 용·구렁이와 마찬가지로 물과 친연성 있는 동물로서 여기서 태어난 김통정은 수신적 기능을 하는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제주의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세 시조가 땅에서 솟아나와 제주민들에게는 대지모성 신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양상은 제주민들이 그저 땅에만 의지하고 살았지, 신분적 계급사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력이나 권위와는 거리가 먼 채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K자료는 ‘아이업개의 말도 들어라’는 속담을 유래하는 내용으로서 단순한 동기 때문에 한 장군이 몰락할 수 있다는 속담을 유래시키고 있다. 또한 그의 죽음을 붉은오름에서 자결하였다 하기도 하고, 후에 신이 되어서 승천했다는 말도 있고, 중국땅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⁹⁸⁾ 이흥기(1944), 전계서, pp.408~414.

볼 수 있다. 이는 비록 김통정이 패했지만 영웅의 좌절은 바로 토착민들의 좌절과 같기 때문에 민중적인 영웅을 평범하게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설4는 실지 향몽지역과는 무관한 안덕면 덕수리에서 채록된 자료로서 광정당 신화에서 토착당신에게 김통정이 징치되는 내용이 전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설에서는 토착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래자형 출생이라든가 아기장수적 면모, 관군과의 대결양상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김통정의 출신이 진시왕(중국의 왕)이 보낸자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제주에 큰 인물이 태어나서 천하를 제패할 것이 두려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라는 작은 섬을 大國과 상대적인 세력과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고종달 전설에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전설5의 ‘희뿌리 샘물’에서는 재를 이용해 적군을 교란시켰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성을 쌓는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렁이와 땅벌레를 잡아먹었다고 하고 있다. 전설1F 자료에서처럼 노역에 동원되어 힘든 상황과 척박한 풍토에 흉년이 겹쳐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그 당시 사회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나) 보조(현장전승 자료)

구분	2차자료(애월지역)					
	고성리	유수암	광령리	장전리	상귀리	하귀2리
비정상적 출생	지렁이와 교통지렁이가아버지인줄모르고 죽어버림	지렁이와 교통	x	몽고왕족으로 출생	x	x
탁월한 능력과 활약	날개와 비늘이 도술을 부림	x	몸에 비늘, 날개, 무쇠방석을 바다에 던져 날아감	날개가 달려 바다 위를 날아다님. 재를 뿌려서 위장했는데 이 재를 공출했다.	x	x
토성 쌓기	제주 사람이 군서위 못함	인력 동원, 먹을 식량이 없어서 배설물만 먹었다. 2년만에 토성을 쌓았다는 게 의심된다.	사람강제 동원, 먹지 못하는 것의 대변을 먹음	토성 쌓기에 제주 민 전부 동원. 원망이 없었음. 서민이 반항 못함. 먹지 않는 것을 먹음	역군으로 뽑혀서, 원망 없이 먹음. 원망하지 않음	x
위기에 부딪힘 (불락예견)	아기업개의 반란	아기업개의 반란	적을 돕는 아기업개	적을 돕는 아기업개	x	x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함	모기로 변한 김방경에게 패함	적에게 항과 두리 함락되어 패함	모기로 변한 적에게 패함	모기를 잡으려다 칼에 찔려 죽음. 관탈섬에서 죽음	x	관탈섬에서 죽음
지명전설 (증거물)	장수발자국 종신당터	종신당터	장수발자국	장수발자국	장수발자국	장수발자국

위의 자료는 실지 항쟁이 일어났던 애월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⁹⁹⁾를 참조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문헌자료보다 더 현장감 있는 진술이 엿보임을 알 수 있다.

문헌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생으로부터 최후까지 비범한 영웅의 일생을 보이는 점은 서로 비슷하다. 단지 문헌자료에서는 김통정의 탁월한 활약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위의 자료에서는 토착민들의 토성을 쌓으면서 힘들었던 당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가족들이 입도했음을 알 수 있는 종신당터에 대한 지명유래도 전해지고 있어 문헌자료와 현장자료와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야래자형 출생의 이야기는 고성지역과, 그 인접한 유수암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문헌자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출신을 과부, 처녀 등으로 설정하면서 그 출신 자체도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고성 지역에서의 출생담에서는 지렁이가 자신의 아버지인 줄을 모르고 밟아 죽이는 반면, ‘전설6N’이나 ‘전설6O’에서는 아버지가 지렁이인 줄 알면서도 밟아 죽여 버렸다. 어쨌든 지렁이를 죽여 버렸다는 모티브는 地龍이 될 뻔한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 버렸으므로 時運이 다되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유수암의 체보자는 삼별초 관련 전설의 모든 부분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마을에서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유수암과 고성은 인근 마을이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비교해 보면 문헌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시간이 흘러도 공통화소가 이야기 속에 그냥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⁰⁾

장전 지역에서는 ‘전설1B’에서처럼 어머니의 출신지를 중국(몽고)왕족으로 설정하여 귀족적 영웅형의 고귀한 출생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부분 자료에서는 평범한

99) 고창석(외)(2002), 전게서. pp.59~77.

100) 상계서, pp.66.

집안에서 출생한 민중영웅으로 그리고 있어 결국은 반역행위를 일으켜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비운의 장수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김통정이 온 몸에 비늘이 돋고 갑옷을 두른 비범한 장수로 태어나 도술을 부리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예견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삼별초가 제주 입거 후 토성을 쌓을 때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대변을 먹기도 했고, 토성을 쌓을 때 고생하고 사람도 많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애월 전 지역에서 두루 전승된다. 상귀리에서는 ‘토성을 쌓을 때 역군으로 뽑혀가서 고생을 하였지만 김통정을 원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장전리에서는 ‘토성쌓기에 동원되었지만 힘이 없는 서민이어서 반항할 수 없었다’라는 상반된 진술이 보이기도 한다. 또 토성을 쌓을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토성 인근 주민은 물론 제주도민이 전부 동원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노역 동원은 토착민에게 있어서 생존에 가장 위협이 되었던 커다란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제주민에게는 그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위의 보조 자료에 토성을 쌓을 때 역군으로 뽑혀가서 고생을 하며 먹을 것이 없어서 본인의 대변을 먹을 정도였다. 이렇게 고생했지만, ‘김통정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원망하지는 않았다고 한 것을 보면 토성 쌓기에 고생을 하였지만 의식의 저변에는 배척할 정도로 나쁜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김통정을 아기장수로 등장시켜 자신들을 다시 구원해주기를 염원했던 것이다.

김통정의 가족에 대한 자료는 전설6Q에서 김통정이 여몽연합군에 쫓겨 패하게 되자 붉은 오름으로 들어가기 전에 처와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어머니는 금덕쪽으로 피신시켜 종신당에 들어와 은신하였다고 하면서 가족의 입도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항쟁이 직접 일어났던 고성지역과 인근마을인 유수암에서 특히 같은 내용이 전승되고 있음을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당신본풀이와 전설은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민중의 의식 또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원래 전설에서 유래되던 이야기들이 당신의 내력담에 삽입되어 혼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당신본풀이에는 당신의 영험성과 신성성을 드높이고자 하였으며, 전설에서는 민중의 영웅이 좌절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급박한 사회상황을 문학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형상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당신본풀이와 전설과의 차이점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6>. 당신화와 전설의 비교

주요 모티브	당신화	전설
아래자형출생, 아기장수적 면모	거의 언급되지 않음	가장 중요한 화소로 등장 -시조신화적 성격, 수신적 성격 -통치자로서의 당위성 -용마의 출현 -날개가 돋아있고, 온 몸이 비늘 또는 갑옷을 두르고 도술을 부림
아기업개의 등장	애월 고내본향에서만 나타남	당신화의 화소와 같으나 아기업개 대신 머슴으로도 등장함 -애월 지역에서만 나타남
김방경 부하장수들과 대결	-당신화에서는 중국의 삼장수, 토착 당신에게서 정치 -이런 대결에서 김통정을 물리친다는 것이 당신의 계기가 됨	-김방경의 부하장수들과 대결을 벌이다 죽음
쌈을 만들어 식수 제공	수신적 성격, -성산본향(장수당)에서만 나타남. -애월당신화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몽연합군이 두둔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표현을 못한 것으로 보임(당신화가 전설보다 경직)	수신적 성격
김통정에 대한 인식	부정적-탐라의 우마와 생산물에 욕심, 김통정입거후 고통스러웠던 사회상황 때문 긍정적-백성을 위해 쌈물제공	-긍정적(민중영웅적 성격, 물을 공급하는 수신적 존재, 패배에 대한 아타까움. 제주민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그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로 인식. 당신화보다는 솔직함이 더 반영) -부정적(노역동원, 군비조달로 인한 식량제공)
역사적 사실의 허구화	외부신의 입도는 전쟁체험을 경험했던 제주민에게 역사와 사회문화적 현상을 보여줌. 김통정은 외래신에게 비극적최후를 맞이하거나, 당신으로 신격화	賊黨으로 기록되던 김통정은 제주민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로 형상화함. 쌈을만들어 식수를 제공함으로써 수신적 성격으로 그리고 있음. 김통정 죽음은 역사기록에서 김방경과 대결을 벌이다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설에서는 부하장수들과 대결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역사적인 경험의 반영이 전설에서 보다 사실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대결양상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영웅신화적 성격을 띠

김통정에 관한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적장으로서 삼별초의 패잔병을 이끌고 탐라로 들어와 내성과 외성을 쌓고 갖은 패악을 저지르며 백성을 도탄에 빠트린 인물로서 여몽연합군에 대항하다 결국은 패배하여 죽었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역사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야래자형 출생’, ‘아기장수적 면모’, ‘아기업개의 출현’, ‘도술을 부림’, ‘쌈에 관한 유래’, ‘지명에 관한 유래’ 등은 민중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서 관(官)과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한편, 당본풀이에서는 항몽의 중심지였던 애월본향 당본풀이에서 중국의 삼장수에 의해 김통정이 정치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고, 실제 항쟁과 관련이 없는 성산본풀이에서는 그를 쌈을 제공하는 긍정적 이미지로, 광정당본풀이에선 토착당신에게 정치되는 모습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전설에서의 민중의식이 당본풀이에는 어떻게 의식되고 있는지 여러 층위의 의식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자료들은 삼별초라는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의 관(官)과 민(民)의 대립적 위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통정 관련 설화는 당본풀이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전승되었는데 김통정이 성을 쌓고 그의 토벌 세력과 싸움을 하는 근본적인 구조에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구체적 묘사나 대결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는 상반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과거 제주 민중의 동일한 역사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편의에 따라 무가에서는 당신의 내력담으로, 구비설화에서는 흥미담으로 전승된 결과라 하겠다. 101)

101) 오대혁(1997), 전계서, p.72.

Ⅲ. 김통정 설화에 나타난 민중의식

1. 당신화에서의 갈등과 해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별로 변이된 당신본풀이에는 많은 양과 복잡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으면서 외래신격간의 대결과 토착신과의 대결양상을 치열하게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민들은 불모의 자연환경과 억압되고 폐쇄된 사회 환경속에서 자신들을 구제해 줄 유일한 신앙을 무속신앙에서 찾았다. 제주민들에게 있어서 堂神의 존재는 정신적 신앙이며, 현실적 황폐함을 보상받으려는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외래신의 입도는 제주민들에게 많은 부정적 인식을 낳게 함으로써 토착민들과 많은 갈등을 초래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과의 갈등 양상이 역사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외래신격간의 갈등대결이다. 이는 중국삼장수와 김통정의 대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마와 생산물을 탐내 입도한 김통정을 징치하는 양상이다.

그 당시 특산물과 말은 고려 정부와 중국에서 탐낼 정도로 품질이 우수한 것이어서 제주민들은 이를 진상해야 하는 억압에 시달려 갖은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우마와 특산물을 김통정이 탐내어 제주에 입도하였으니 이미 제주도의 우마와 생산물을 손에 쥐고 있던 중국 삼장수가 김통정을 징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통정이 이러한 것을 탐냈다는 것은 김통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전승민의 김통정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둘째는 지배층과 堂神의 대립이다. 이는 이형상목사가 미신타과의 일환으로 신당을 철폐함으로써 당시 제주민들의 삶의 전부였던 종교를 없애려고 한 사건이었다. 즉 퇴치자인 목사(또는 관관)와 퇴치를 당한 당신(또는 뺨)과의 치열한 대립관계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목사와 당신과의 투쟁 후, 결국에는 당신이 승리하는 결구로 되어 있다.

셋째는 몽고군과 김통정의 대결이다. 이는 삼별초 평정 후 몽고군이 거의 1세기 동안 제주를 지배하면서 갖은 만행과 약탈, 부녀자 겁탈 등이 횡행하자 김통정이 몽고군을 격퇴한다는 내용이다.

넷째는 외래신과 토착신간의 갈등으로서 김통정과 토착신과의 대결양상이다. 광정당신은 제주 토착당신으로서 당신중에는 신령이 가장 센 신이다. 이러한 신에게 김통정이 징치당했던 것은 김통정이 제주에 입거함에 따른 부정적 인식들이 외래신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삼별초 주둔으로 축성에 따른 노역동원, 군량미와 군비조달로 식량부족, 항몽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다름으로 인해 그 뜻을 같이 할 수 없었던 부정적 인식들이 결국은 토착신이 승리하게 만들었으며, 토착신이 승리했다는 것은 민중을 대변하는 신이기에 이를 신앙하는 신앙민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갈등양상들을 민중들은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삼장수와 김통정의 대결에서는 김통정이 우마와 생산물을 탐냈기 때문에 징치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당시 제주민들은 중앙관서에 특산물 진상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토산물 진상은 《고려사》 1034년(덕종 3년) 11월 팔관회(八關會) 때 토산물을 바치면서부터 전례가 되었다고 한다. 왕조실록에서 그 진상품의 감량을 호소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진상품목은 온 섬에서 나는 해산물을 전부 거둬들여야만 할 정도로 모두 여기에 충당하였다. 특산물인 굴은 각 마을 굴나무 있는 집을 돌아다니면서 열린 굴을 모두 조사하여 기록해 두었다가 목사에게 보고하고, 그 수량에 미치지 못하면 처벌을 내렸다. 그러므로 굴나무를 가진 민가에서는 굴 보기를 독약과 같이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굴나무를 없애려고 하였다.¹⁰²⁾ 이러한 특산물과 아울러 말(馬)¹⁰³⁾을 같이 진상하게 되면서 관리들과 몽고인들의 횡포와 착취에 시달렸고, 또 삼별초 주둔으로 인한 노역동원과 군비조달로 인한 식량부족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끼쳤던 부작용은 이루 말

102) 김상헌, 《南槎錄》, pp.148~149.

103) 《고려사》 문종 27年(1073年)부터는 좋은 말들도 진상하였고, 1258년(고종 45년) 5월과 1260년(원종 2년) 7월에 제주 공마(貢馬)로써 문무 4품 이상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또 충렬왕 20년 탐라를 고려에 還付하면서도 그 貢馬는 계속되었고, 그와 관련된 方物까지도 헌상의 대상이 되었다.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김통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중국 삼장수로 하여금 징치 하도록 하였으나, 김통정은 비범한 용마를 포획하여 제주백성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섰고, 백성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면서 특산물을 진상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신은 밭벼 몇 관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세금으로 빗자루 3개와 재(灰) 1되만 바치게 하는 등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다.

“당신네 경 서월러레 진상 바찌곡 흐지말라. 나가 여기에 책임 맡겠다.”고. 책임이던 단지 여기에 눈이 이시난, 그때 나륙이란 거 어려왔지계. 나륙이 어려우니계 통정이가, “거, 나륙 멧판이영 그자 나 먹으민 말 거고. 세금은 빗츄록(빗자루)싯흐곡 재 흐웨. 모든 백성 이것만 해 오라.”백성들이 펜안흐기를 무신 세금 물랜 아니흐곡, 그자 재 흐웨 흐곡 빗츄록 싯개. 대죽(수수) 깎아 노민 저까짓것 흐를 멧개라도 맨들아(전설31)

그 당시의 사회상황은 흉년으로 인한 각종 기근으로 자기가 누운 인분을 먹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였으나, 김통정은 백성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려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배층과 堂神과의 대결은 당시 무당들의 횡포 때문에 백성들의 피해와 행패가 극심하다고 하면서 신당철폐를 감행한 이형상목사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탐라기년》에서는 이목사를 과감 정직하여 백성을 보살피는 일에 힘썼으므로 섬사람들이 그의 덕을 길이 간직하여 德化民婢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직접 음사 철폐에 대한 그의 치적에 대해서 상당히 칭송하면서 이 모든 조치가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¹⁰⁴⁾ 그러나 이러한 목사의 치적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목민관이나 유생들은 모두 이조사회의 지배이념을 추종하고 있는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민중들의 의식과는 그 실체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민중들은 이목사 치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설화¹⁰⁵⁾를 통하여 나타냄으로써 당을 철폐한 이형상 목사와 당신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당을 철폐한 이목사에 대한 당신들의 이러한 복수 의도는, 바로 당신을 숭상했던 사람들의 내면적 진실이면서 신당철폐에 대한 극렬한 부정인식이라고 볼 수

104) 《耽羅紀年》, 肅宗 28년(1702年)일.

105)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1, pp.101~103.

있다. 이와 같이 허구적 설화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인식은 제주 사람들의 황폐한 삶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계속되는 가뭄과 흉년이 자주 일어나고,¹⁰⁶⁾ 왜구의 침탈, 관리들의 가렴주구, 원의 지배로 인한 각종 약탈 등의 역사적 사실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제주민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신당을 철폐하는 이목사를 당신으로 하여금 복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제주사람의 설화의식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맞서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결국 지배층이 표면적으로는 신당을 철폐하여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으나, 끝내 당신들은 이목사의 무덤 위에 서려 있으면서 복수를 가하게 된다. 이는 제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의식의 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몽고군과 김통정의 대결에서는 갖은 만행과 겁탈 등을 자행하는 몽고군을 김통정이 퇴치를 해주었으니 당신으로 모실 만하다는 것이다. 삼별초가 평정된 元宗 14년부터 몽고의 억압과 횡포의 수모에 시달리게 되고, 목축사역의 구실 하에 초적죄인¹⁰⁷⁾을 풀어 놓았기 때문에 이들 죄인들의 횡포, 절도로 불안과 공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갔다. 고려와 원나라 양국에 헌상하는 과중한 歲貢과 元의 관원, 고려의 京來官 屋主 王子 등 삼중으로 지배층의 토산물 징발에 의한 수탈은 물론 때로는 극심한 탐관오리의 가렴주구 등으로 인권은 극도로 유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헤어날 길이 없었다. 장정들은 전쟁터 또는 重勞役場으로 끌려갔으며, 부녀자들은 몽고인의 노비로 징발 당했다.¹⁰⁸⁾

한편, 원나라의 목마관리를 위하여 제주도에 들어왔던 목호들은 성질이 사나워 원이 멸망한 후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여러 차례의 난을 일으키고 목사와 관리들을 살상하는 등 횡포가 심했다. 그러나 제주민들은 이러한 고난과 패배의 역사

106) 1) 《朝鮮王朝實錄》中宗 15年 10月 18日. 중종때 제주목사를 지냈던 金錫哲은 제주섬을 돌산 위에 흙을 덮어 놓은 것과 같은 땅이므로 2,3일만 비가 안오면 가물고 4,5일만 비가 내리면 물난리가 나 자주 흉년이 든다고 왕에게 아뢰었다.

2) 《朝鮮王朝實錄》玄宗 11年~12年. 태풍이 제주에 몰아쳐 교량과 인가와 길이 무너지고 해일까지 덮쳐 초목이 말라죽는 참사가 일어났다. 조정에서 구휼미를 보내어 구제하려 하였으나 감당하질 못하였다. 굶주린 자들이..남의 마소를 도적질하고 각처에 날뛰어 섬안은 더욱 어지럽게 되어 그 참상이 극심해 졌다.

107) 고려사에 의하면 忠烈王 元年 4월에 盜賊 百餘人을, 同王 3年 5월에 罪人 33인, 同年 8월에 40인을 각각 濟州에 유배시켰다.

108) 변승규(1992), 전계서, p.38.

를 여기서 굴복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통정을 내세워 몽고를 물리치게 만들어 당신으로 모신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민의 의식구조 속에 항상 자주·자립사상과 저항의식이 도사려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래신과 토착신간의 갈등에서는 김통정이 제주에 입거함에 따른 부정적 인식들이 토착신에게 징치를 당하게 한다. 서촌 양반 3형제인 토착당신들은 외지에서 온 장수가 제주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제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삼형제가 나타나 김통정을 물리쳤다. 김통정을 잡아서 그를 물리쳐야 제주도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둔갑을 하여 달아나는 김통정을 큰형님이 퇴치하였다. 토착당신이 외래신을 퇴치한다는 것은 제주민들의 겪었던 역사적 시련과 고통을 극복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상은 삼달본향당본풀이에서 드러나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역적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주에 새로운 질서가 생성될 수 있는 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 당시 도덕률에 대한 민중들의 반항의식을 뜻하며, 사회가 거부하는 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폐쇄된 사회현실과 당시 도덕률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성산본향당본풀이에서는 김통정을 샘물을 제공하는 뛰어난 장수로 묘사하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본풀이에 삽입된 김통정 이야기는 당신의 내력담으로 풀이되면서 당신의 신성성과 영험함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몽고인, 고려인, 김통정은 제주민에게 있어서는 외세 세력이었을 뿐 제주민들에게는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주민들은 갈등과 좌절을 당신본풀이와 전설에서 아기장수를 탄생시키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2. 전설에서의 좌절과 극복

제주역사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본토와는 다른 지리적 조건으로 생활양식 자체도 달랐다. 메마른 땅에 三災가 겹친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의不利는 제주민들의 삶을 여유 없게 만들었으며, 더구나 内外의으로 당해야 했던 사회적·역사적 수난도 극심했으니 그것은 관리들의 擄取와 외세의 侵奪이었다. 또한 술한 貢納에 시달려 제주민들의 삶은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척박한 지리적 조건과 수난의 배경속에서 제주사람들은 인물이 날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만큼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며 살아왔다. 큰 인물이 나와서 현실을 개혁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원했다. 그 결과로 민중들은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아기장수를 출현시켰다. 여기에 제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듯 했다. 그러나 폐쇄된 사회는 결국 장수를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했고, 왕권을 도전하는 인물은 역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현실적 제약에 따른 민중들의 저항과 좌절이 나타난다.

제주민들은 아기장수를 살려둬으로써 영웅이 나와 주기를 고대하였다. 그러나 평민의 집안에 태어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장수는 이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한계성과 평민태생의 장수는 역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결국 제주민들은 영웅이 탄생하지 못함을 중앙정부와 몽고의 강대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것은 제주는 결코 패배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삼별초의 패배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연유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명당자리에 선묘를 쓰자 뛰어난 인물이 나오고 그런 인물들이 하나같이 왕이 두려운 존재였던 것처럼 민중영웅의 탄생은 중앙정부로서는 제거해야할 대상이며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아이를 제거하거나 숨겨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가 비범한 인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었다. 역적이 나면 삼족이 멸할 당시의 경직된 현실에서 그들은 어떻게 거부당해야만 할 인물들이었다. 그러면 그런 거부의 행위를 담당할 객체는 누구인가. 그건 모두가 나라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즉 절대 권력에

어쩔 수 없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토의 아기장수전설들이 관의 개입이나 부모가 아기장수를 죽이는 행위들은 기존의 사회질서가 아기장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에는 개인보다는 국가가 우선한다는 왕권통치사회의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통정의 어머니는 아기장수를 죽이지 않고 감추어 기른다. 장차 장수가 될 비범한 아이를 낳고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가 장차 역적이 될 것을 두려워서 자기가 낳은 아기를 숨겨 기를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숨겨 길렀다는 것은 지배체제가 결코 민중들과는 맞서 싸울 수 없다는 불가항력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평민의 아들로 태어난 비범한 인물은 사회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성 때문에 역적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역사적으로 계속된 민중들의 민란이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데서 오는 패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차 민중들을 구원해줄 영웅을 기다리는 제주민들의 저항의식을 대변해준 것이며, 사회 고정체계에 대한 반항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태어난 장수가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없다는 민중의 꿈과 소망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가 육지에 비해 소외당한 곳이라는 점과 지배집단에 대한 민중의 적개심과 저항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김통정을 아기장수로 탄생시켜 민중들을 구원해 주기를 염원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제주민들은 김통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마는 않았다. 삼별초군이냐 여·몽연합군의 입도는 제주민에게는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다. 성의 구축에 노역이 동원되고, 삼별초 입도에 따른 전쟁에 수많은 희생자를 냈을 것이다.

입도초기에는 삼별초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협조가 삼별초 본진이 대거 입도했을 때는 지배집단의 성격과 같은 위압감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래서 토착민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올 줄 알았던 영웅에게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고 제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비범한 인물들이 몰락한다는 것은 몰락한 인물의 불운함과 사회상황, 그리고 정치적 폭력이 함께 개입됐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민중들은 아기업개를 등장시켜 김통정을 죽게 만들지만 아기업개를 적대세력으로만 볼 수가 없다. 토착민을 상징하는 아기업개는 결국은 가해자이

지만 한편으로는 지배집단에 의해 피해를 당한 토착민이기도 하다. 결국 본토의 아기장수설화에서 부모가 아기를 죽이는 경우와 아기업개의 방해로 김통정이 패배하는 모티프는 아기장수의 적대세력이 부모와 아기업개가 아니라 지배집단과 폐쇄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지배체제를 경험했던 민중들이 지배질서의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의 두려움 때문에 토착민을 내세워 김통정을 죽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평민의 아들로 태어난 장수는 결코 역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회상황과 이들의 항거는 항상 패배하였다는 역사현장에서의 비극적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지배집단에 대한 민중의 항거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수가 태어나도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스며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의 민중들은 구비물을 통해서 패배한 인물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비운의 장수로 남겼다. 역사적인 기록에서 김통정은 붉은오름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전설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김통정의 영웅적인 활약에 더 관심을 두었다. 김통정이 도술을 부리며 최후까지 관군에게 대항했다는 것은 민중의 좌절을 극복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김통정 이야기는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역적이거나, 賊黨의 우두머리로 인식되고 있지만 민중들이 인식하는 김통정은 피지배층을 구원해주는 영웅적 존재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통 받는 민중, 도탄에 빠진 백성, 지배층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민중들을 구원하려 하였으며, 결국은 아기장수의 죽음으로 민중적 가능성이 좌절로 끝나고 말았지만 지배질서에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아기장수가 출현했다는 점에서는 고착된 지배질서에 맞서려는 각성된 민중의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통정의 아기장수로의 출현과 비범한 활약상은 폐쇄된 그 당시의 폐쇄된 사회상황과 맞서려했던 역사적 상황에 대한 극복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패배주의적 관념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을 타개해 나가려는 삶의 진지함이라 여길 수 있다.

V. 결론

외세의 침략과 지방 관리들의 수탈로 끊임없이 시달려온 제주 역사에서 김통정을 비롯한 삼별초의 항몽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준다. 이러한 사실은 구비전승물을 통해 각 집단의 요구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수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배층의 관점에서 서술한 官撰史書들은 김통정을 나라를 반역한 逆將으로 인식되었지만, 민중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구비설화에서는 김통정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의 이면에 숨겨있는 민중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제주민들이 향유했던 당신본풀이와 전설에서 그 전승과 변이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실제 역사상의 인물이 민중들의 의식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당신본풀이에서는 김통정을 중국의 삼장수와 토속당신에게 징치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과 샘플을 제공하는 수신적 기능을 하는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통정이 중국의 삼장수에게 징치되는 양상은 전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화소인데 유독 광정당본풀이에서는 토속당신에게 징치당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저변에는 삼별초군이 제주에 입거한 후 방어시설과 군비조달을 위해 제주민들을 노역동원과 경제적 수탈을 했을 것으로 보아 제주민들과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산 장수당본풀이나 애월 금덕리당본풀이에서는 김통정을 샘플을 제공하는 존재로, 또 몽고군에게 겁탈당하는 부녀자들을 구하는 등 긍정적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 결국 당신본풀이에는 세신의 좌정담을 김통정과의 싸움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허구화하면서 당신의 위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전설에서는 아래자형 출생-활약-죽음을 통한 전기적 성격을 통하여 민중영웅으로서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아래자형 출생은 백제 계통의 건국시조가 되는 신화적 성격을 계승한 존재이고, 민중들은 몽고의 침략으로 짓밟힌 불안한 사회 속

에서 영웅출현을 갈망하였으며, 그 영웅을 신이한 출생과 道術을 부리는 아기장수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죽어가면서 샘물을 제공하는 수신적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의 죽음과 패배에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다. 이는 당신화와는 달리 반체제적이고 변혁을 바라는 민중의 심리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신본풀이나 전설에서 김통정의 부정적인 면모나 긍정적인 인식들은 그 당시 민중들의 솔직한 표현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김통정을 나라를 반역한 역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민중들은 피지배층을 구원해주는 영웅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아기장수의 죽음으로 민중적 가능성이 좌절로 끝나고 말았지만, 아기장수의 출현은 지배질서에 막대한 위협을 주었다는 점에서 고착된 지배집단에 맞서려는 각성된 민중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기초자료 >

《高麗史》

《高麗史節要》

《元史》

《新元史》

진성기(1991), 「제주도 무가본풀이사건」, 民俗苑

현용준(1976), 「제주도전설」, 서문당

제주도(1985), 「제주도전설지」

「한국구비문학대계」(Ⅲ)9-3(제주편)(198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영돈·현용준·현길언(1985), 「제주설화집성」 I,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임석재(1992), 「희뿌리샘물」, 「한국구전설화」 9(제주도편)

애월읍 고성리향토지편찬위원회(1983), 「고성리지」, 북제주군

고창석(외)(2002), 「제주향과두리향몽유적지학술조사및기본정비계획」

< 연구논문 >



현용준(1964), “당신화의 구성과 배경”, 「제대학보」, 제6호, 제주대학교

_____(1963), “무속신화 본풀이의 형성”, 「국어국문학」 26집, 국어국문학회

_____(1963), “본풀이의 형성과 내용”,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현용준·현승환(1982),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연구”, 「탐라문화」 15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현길언·김영화(1980), “제주설화를 통한 제주도 정신고구”, 「논문집」, 제12집, 제주대학교

현길언(1983),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탐라문화」,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현승환(1982), “제주도 풍수설화의 이해”, 「탐라문화」,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_____(1992), 「내 복에 산다」系 說話 研究,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대학원

고창석(1984), “여·원과 탐라와의 관계”, 「논문집」, 제17집, 제주대학교

윤용혁(1994), “별초진도정권의성립과 그 전개”, 「한국사연구」, 아세아문화사

_____(1994), “고려삼별초의 제주항전”,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회

김윤곤(2004), “삼별초정부의 대몽항전과 국내외정세변화”,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김윤곤(1981), “삼별초의 대몽항전과 지방군현민”, 「동양문화」 20-21, 합輯, 영남대학교

- 이경희(1996), “삼별초고”, 「연우연구론집」, 이화여자대학교녹우회
- 김상기(1938), “삼별초와 그의 난에 취하야”, 「진단학보」, 진단학회
- 조동일(1970), “민담구조의 미학적 사회학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속학」 제3권, 한국민속학회
- 권태효(1999),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 제8집, 구비문학회
- 권태효(1998), “호국여산신설화의 신격인식 양상 연구”, 「한국민속학」 30, 민속학회
- 오대혁(1997), “김통정관련 서사물에 투영된 역사인식”, 「동원논집」, 제10집, 동국대학교
- 서대석(1985), “백제신화연구”, 「백제논총」, 제1집, 백제문화개발연구소
- 이혜화(1983), “아기장수전설의 신고찰”, 「한국민속학」 16집, 민속학회
- 유용대(1981), “설화와 역사인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 나종우(1986), “고려무인 정권의 몰락과 삼별초의 천도항몽”, 「원광사학」, 제4집, 원광대학교 사학회
- 장주근(1986),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제주도 연구」, 제3집, 제주도연구회
- _____ (1994), “제주도 무속과 당신앙”, 「제주도연구」, 제11집, 제주도연구회
- 진성기(1985), “제주도 무속과 당신앙”, 「한국문화인류학」, 제17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_____ (1970), “제주도 신당과 당신”, 「한국민속학」, 제2집, 민속학회
- 이정신(1991), “고려 무신정권기 농민,천민 항쟁 연구”, 「민속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
- 전혜경(1983), “인문전설의 구조와 사상배경에 관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표인주(1963), “민속현상에 나타난 말(馬)의 상징성(II)”, 「호남문화연구」, 전남대학교
- 임철호(1996),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 _____ (1987) “구비설화에 나타난 민족의식과 민중의식”, 「논문집」, 제16집, 전주대학교
- 조동일(1971),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 동아문화 10집, 「동아문화연구소」, 서울대학교

<단행본>

- 현용준(1985),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 조동일(1982),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_____ (1985),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 현용준(1985),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 김봉옥(1990), 「제주통사」, 제주문화
- _____ (2000), 증보 「제주통사」, 세림

- 김태준·김승호 엮음(1994), 「우리 역사인물전승」 1, 집문당
- 閔賢九(1991), “蒙古軍·金方慶·三別草”, 「한국사시민강좌」 제8집, 일조각
- 임재해(1982), “전설과 역사”, 「한국문학 연구입문」, 지식산업사.
- 북제주군(1987), 「북제주군지」, 경신
- 오대혁(1997), “김유신설화의 전승양상과 그 의미”, 「우리 역사인물전승」 2, 집문당
- 장주근(1995),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 진성기(2005), 「무속학」, 제주민속연구소
- 최내옥(1994), 「구비문학론」, 학사고시방송교육본부
- _____(1984),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 현길언(1981), 「제주도 장수설화」, 흥성사
- _____(1985),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 임재해(1991),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 변승규(1992), 「제주도略史」, 제주문화
- 이영권(2005), 「새로쓰는 제주사」
- 김선경(2003), 「한국문화와 제주」, 국립대학박물관, 서경
- 제주도(1982), 「제주도제주도지(상권)」
- 조동일(1985),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 최운식(1991),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 장덕순(1981), 「한국 설화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Abstract>

Study on Narrations of Kim Tong-Jung

Lee, Nam-Ok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Seung-Hwan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Jeju Islanders' consciousness of Kim Tong-Jung. The main focus was placed on historical statements related to Kim Tong-Jung and oral tradition materials. References to Koryo government resistance against the Mongol invasion as well as the messengers' consciousness in the stories about Kim Tong-Jung orally hand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are included.

Historical books written from the view point of the ruling class regarded Kim Tong-Jung as a traitor while oral narratives didn't always depict him negatively. Therefore this study took an in-depth look at oral transmission and changes in myths village god and legends enjoyed by Jeju people to determine popular sentiment regarding Kim Tong-Jung that is hidden behind history. How a real person in history was popularly conceived is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From an analysis of Dangbonpuri related to Kim Tong-Jung at shamanistic ceremonies in Jejudo, Kim Tong-Jung is depicted negatively. According to the story, indigenous gods and gods from the mainland took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Kim Tong-Jung. However shamans traditionally provided spring water to village residents belonging to a certain jurisdiction. This meant that the shaman was playing the role of a water god, thereby implying that people handing down the stories orally saw Kim Tong-Jung positively. The negative point of view against Kim Tong-Jung is revealed in brutalities the Sambyulcho militia committed after arriving in Jeju. Kim Tong-Jung forced the residents to build military facilities and stole from residents for funds to raise the

Sambyulcho militia. These facts are not contained in historical records but are explicitly disclosed in the oral tradition narratives. Considering these contradictions in stories about Kim Tong-Jung, it seems that Jeju people weren't entirely comfortable with him.

Nevertheless, Kim Tong-Jung has been revered as a spiritual entity providing spring water in shamanistic epics used in Jangsu ceremonies of Seongsan-eub and in Keumdeokri rites of Aeweol-eub. In these stories he is recognized as a hero for rescuing women and girls from rape by Mongolian soldiers. As a result, the epics sung at shamanistic ceremonies could be interpreted as historical fiction heightening the village god's position by conveying the local god's heroic feats against Kim Tong-Jung.

Legends depicted the life story of a national hero through characteristics such as miraculous birth, supernatural exploits and a tragic death. People earnestly wished for a hero that could bring order to a society destroyed by the Mongolian invasion, so they wrote the hero as a baby-commander of divine birth using Taoist magic in legends. In addition, he also appeared as an entity such as a water god because he gave spring water at the moment of dying; His death and defeat strongly reflect the antigovernment and revolutionary psychological state of the Jeju people at that time.

As mentioned above, historical records invariably depict Kim Tong-Jung as a traitor rising in revolt against the government, whereas the populace more or less recognized him as a hero saving those under oppression.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appearance of a baby-commander was the awakening of popular consciousness in that it threatened the ruling order despite the frustration of these revolutionary aspirations upon the death of King Tong-Jung, the baby-commander.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